

‘승부사’ 구광모의 결단... ‘실용주의’로 혁신 이끈다

취임 4년 차 사업 재편 속도

취임 4년 차를 맞은 40대 젊은 오너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기존 LG 스타일을 짝 잡아엮으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대 회장들이 독심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갔다면, 구 회장은 실용주의에 입각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가치가 떨어진 사업부를 매각하고, 해외의 유망기업을 인수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그룹의 보수적인 문화를 깨기 위해 출신을 불문한 외부 인사도 적극적으로 영입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LG전자가 ‘아픈 손가락’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선 건 구 회장의 경영방침인 ‘선택과 집중’에 큰 영향을 받았다. 전날 LG전자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스마트폰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 는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한 사실상 ‘매각’이나 ‘철수’ 선언으로 풀이한다.

2000년대 중반까지 ‘초콜릿폰’과 ‘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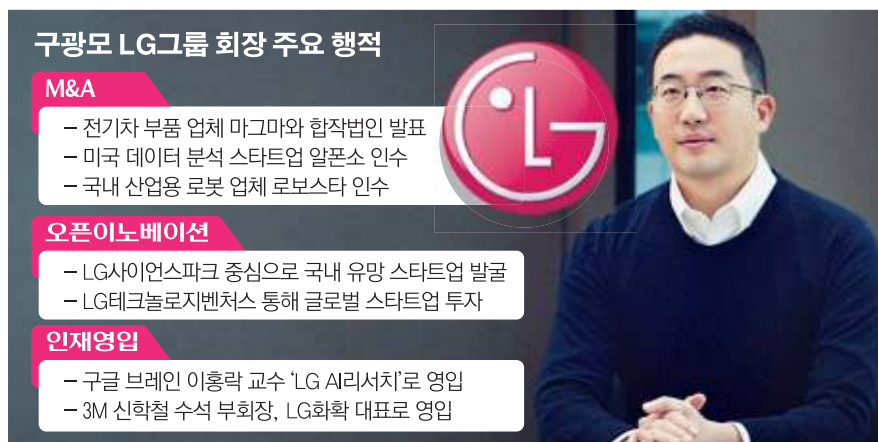
‘5兆 적자’ 스마트폰 사업 재검토 車전장·AI 등 미래 먹거리 투자

순혈주의 탈피... 외부 인재 영입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박차

폰’ 등이 대박을 터뜨리며 상승장구하던 LG전자는 스마트폰 적기 대응에 실패하며 조 단위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인화를 중시하는 그룹 문화를 고려할 때 철수나 대규모 사업 축소는 없을 것으로 재계는 예상했다.

그러나 구 회장은 취임한 지 1년이 됐을 당시 LG전자 평택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사업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승인하는 등 승부사적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앞서 구 회장은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LG의 미래를 “전자·화학·통신 3대 축으로 준비하겠다”고 약속하며 변화를



예고했다.

이후 비핵심 분야를 과감하게 정리했다. 연료전지, 수처리, LCD 편광판, 전자결제 등이 매각을 단행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반대로 자동차 부품,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전기차 배터리, AI(인공지능), 로봇 등 확실한 미래 성장동력에는 과감한 투자와 인수합병(M&A)에 나섰다.

지난해 말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했고, 불과 일주일 후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TV광·콘텐츠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알폰소를 인수했다.

구 회장은 오픈 이노베이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LG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협력하는 동시에 해외에서는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통해 글로벌 유

망 스타트업에 발 빠르게 투자하고 있다.

순혈주의를 깨고, 외부 인재 영입에도 적극적이다. 취임 첫해인 2018년 연말 인사와 조직 개편에서 3M 신학철 수석부회장에 러브콜을 보내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말에는 AI 전담 조직인 ‘LG AI연구원(LG AI Research)’을 출범하고, 세계적인 AI 석학이자 구글의 AI 연구 조직 ‘구글 브레인’ 출신 이훈락 미국 미시간대 교수를 영입했다. 이 밖에 윤형봉 티맥스소프트 글로벌사업 부문 사장이 LG CNS 최고전략책임자로, 허성우 롯데BP화학 대표가 LG화학 석유화학사업본부 글로벌 사업추진담당으로 영입된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재계 관계자는 “구 회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글로벌한 감각을 갖췄다”며 “개방적 스타일에도 과감한 추진력까지 보여주며, 그룹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스마트폰 사업, 철수 땀 영업의 1兆 이상 늘 듯

구글·빈그룹 등 인수 후보로 거론 증권가, 목표주가 20만원대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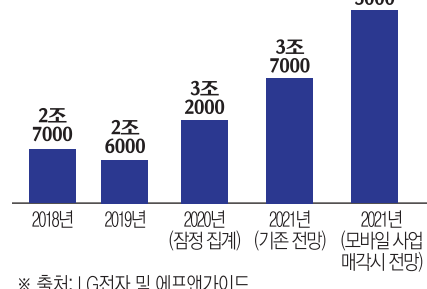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사업을 철수할 경우 올해 LG전자의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LG전자 목표 주가도 줄줄이 상향 조정됐다.

21일 시장조사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LG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3조7000억 원이다. LG전자의 MC사업본부 철수를 고려하지 않은 전망치로, 그럼에도 지난해 영업이익 3조1900억 원보다 16% 증가했다.

향후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

LG전자 영업이익의 전망

(단위: 억 원)



※ 출처: LG전자 및 에프앤가이드

수할 경우 실적 변화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NH투자증권은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올해 매출액은 67조8000억 원에서 62조7000억 원으로 감소하겠지만, 영업이익은 3조5000억 원에서

LG 모바일 인수 잠재 후보

구글	안드로이드 OS 장악했으나, 자체 생산 스마트폰 존재감 미미
페이스북	증강현실, 가상현실 사업 추진 전망
폭스바겐	스마트폰 기술 활용 전장 사업 강화
빈그룹	LG전자 베트남 공장 확보로 사업 확대

4조2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영업이익 전망치보다 2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 3조2000억 원에서 1조 원 수직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유진투자증권은 LG전자의 영업이익 전

망치가 3조8000억 원에서 4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키움증권도 영업이익이 4조 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모바일커뮤니케이션)사업본부는 2015년 2분기 이래 2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영업적자 규모는 지난 4개년 평균 8000억 원 수준이며, 올해는 6700억 원의 적자 지속이 전망된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적자는 5조 원 규모에 이른다.

향후 시나리오로는 사업부 축소, 중저가 중심 운영, 매각 등 다양한 방법들이 거론된다. 실제 매각이 추진될 때는 MC사업본부를 인수할 잠재적 후보로 구글과 페이스북, 폭스바겐, 베트남 빈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어떠한 결정이 나든 그동안 큰 비중을 차지했던 MC사업본부의 영업적자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가전과 전장부품, B2B 등의 사업 집중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가전과 TV를 필두로 전장 사업 등에서 실적을 반추하며 성장세가 기대된다.

증권업계는 LG전자의 모바일 사업부 철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회사 목표주가를 20만 원대로 올렸다. LG전자 목표주가로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이 22만 원, 하이투자증권은 23만 원을 제시했다.

조철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년간 베트남으로 스마트폰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ODM 비중을 확대(지난해 60%)했어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자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큰 적자를 내던 모바일 사업부의 영업가치를 기존 -5조 원에서 0원으로 변경하며,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이 빠르게 사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이인아 기자 ljh@

희망은 ON!

정부, 회생법원, 캠프가
온 힘을 모아 재기를 돕겠습니다!

정부의 폭넓은 정책지원
회생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경영환경 조성,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

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

캠프의 촘촘한 재가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투자매칭,
자산매입 후 임대(S&LB), 신규자금지원(DIP금융)

회생중소기업 사장님 -
절망은 NO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1588-3570**
온기업 **www.oncorp.or.kr**

즉석밥·라면·두부... '서민의 한 끼' 가격상승 도미노

코로나發 애그플레이션 공포

업계 “원료·인건비 올라 가격 조정”
오뚜기밥 8%·풀무원 두부 10% ↑
하반기부터 상승세 본격화할 듯

코로나발 글로벌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 가공식품도 가격 인상 움직임이 시작됐다.

99%를 수입에 의존하는 밀 가격 폭등으로 빵, 라면, 과자 등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제품의 원가 부담이 커졌다. 대두 가격 상승으로 두부 제품 가격이 이미 올랐고, 사료용 곡물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육류 가격 인상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신선식품 가격 인상에 가공식품과 육류까지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경우 가계의 엔겔지수가 높아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21일 미국 소맥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제 밀 선물 가격이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밀 자급도가 낮은 국내 식품 물가의 인상 우려가 고개를 드는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밀 수량은 연간 215만 톤(최근 5년 평균)이지만 국내 생산량은 3만 톤 수준으로 자급률은 1%대에 그친다. 반면 1인당 밀 소비량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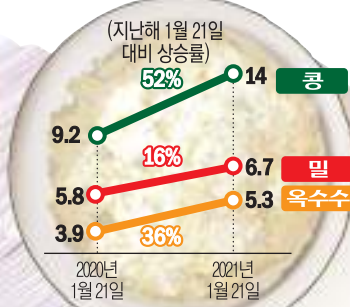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가 가공식품의 본격적인 가격 인상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메르스, 신종플루 등 역병이 유행했을 당시 식료품 물가 상승 시기를 보면 대체로 곡물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뒤 9개월~1년 후였던 점을 감안한 전망이다.

실제 2011년 2차 애그플레이션(곡물 가격 상승으로 일반 물가가 동반 상승하는 현상) 파동 이듬해인 2012년 대부분의 식품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했다. 맥도날드,



주요 곡물 선물가격
단위: 부셸(27.2kg)당 달러

단위: 무셀(27.2kg)당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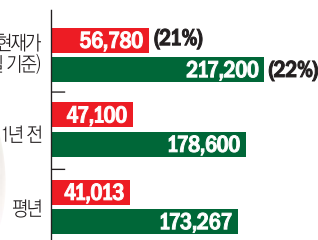


※ 출처: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쌀·국산 흰콩 도매가
(단위: 원)

(15) $\frac{[a]}{[b]}$

■ 쌀(20kg) ■ 국산 흰콩(35kg)



※ ()는 1년 전 대비 상승률

※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

가격 인상이 현실화한 품목도 등장했다. 풀무원은 이달 초 국산콩 두부, 콩나물 품목에 대해 인상을 10% 내외로 기습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풀무원 측은 “국산콩 가격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커져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다른 국내 식품업체들은 곡물 가격 상승에도 당장 수급 불안과 가격 인상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원료를 오늘 구입해서 당장 내

일 쓰는 것이 아니라 반년~1년 단위로 긴
기간 준비하기 때문에 당장 수급 문제가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면서 "국제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면 업계 역시 국제 곡물가격이 곧바로 수급 불안이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긴 어렵고, 제분사나 옥수수 등 국내 가공업체들의 단가 인상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현재 옥수수, 옥분,

김혜지 기자 heyji@

“국내 자급률·해외조달·재고 효율화
3개 축으로 ‘3차 식량위기’ 대응을”

식품·외식업계 '대체육' 쟁점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식량 위기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수록 떨어지는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해외 조달의 효율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국내 생산·해외 조달 효율화·재고 비축 제도 등 3개의 축이 잘 운영돼야 식량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임정빈 교수는 “2012년 2차 애플리케이션 이래 또다시 3차 애플리케이션 우려가 고개를 내미는 건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인의 공통 과제”라면서 “특히 기후변화 시대에는 농업 부문이 가장 위협을 받는 산업으로 주기적으로 식량 부족에 대한 위험이 도래하고는 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식량 안보는 국민들에게 가급적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적정한 가격에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 특성상 국내생산량을 높이고 해외 조달의 효율화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재고 비축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외 식량 조달 효율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적 주문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 교수는 “수입 루트를 다양화해서 우리의 안전

롯데리아 등이 원재료비 상승을 이유로 줄
줄이 햄버거 가격을 올렸고, CJ제일제당
은 출시 10년 만에 즉석밥 ‘햇반’ 가격을
인상했다. 라면, 참치캔, 맥주 등도 인상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김정섭 신영증권 연구원은 “농심 신라면, 오뚜기 잔라면 등 각 라면 대표 상품을 의 경우 가격 인상에 민감한 품목들이다 보니 소비자 저항을 고려해 인상률이 대체로 높진 않다”면서도 “신라면 블랙’처럼 신제품을 출시하며 출고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뚜기는 지난해 9월 쌀값 상승을 이유로 즉석밥 3종(작은밥·오뚜기밥·큰밥)의 가격을 평균 8% 인상했다. 당시 오뚜기밥(210g) 기준으로 710원에서 770원으로 올랐다.

CJ제일제당의 '햇반'도 2018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평균 9%씩 가격을 올렸다. '햇반 210g'은 1480원에서 1600원까지 올랐고, 햇반 컵반 스팸마요덮밥은 2980원에서 3180원으로 올랐다. 햇반은 지난해에는 쌀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결했으나 쌀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어 올해 추가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망을 높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해외 농장 개발 사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사시 자국 식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체육도 식량 위기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가축 전염병으로 육류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경우 대체육이 공급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는 물론 외식업체들도 앞다퉈 대체육을 도입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농심은 자체 비건 식품 브랜드 '베지가든'을 론칭하고 18개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베지가든은 식물성 대체육 제조기술을 접목한 간편식으로 고기를 전혀 넣지 않은 떡갈비와 다짐육 등으로 구성됐다.

풀무원의 비건 만두를 선보였고, 동원F&B도 대체육 제품인 ‘비온드미트’를 출시했다. 롯데푸드는 ‘엔네이처 제로미트’를 론칭하며 대체육 시장에 진출했다. 롯데마트는 대체육 상품인 ‘고기 대신’ 브랜드를 선보이고 후라이드치킨, 돈까스 등 총 6종을 내놨다.

외식업체도 대체육으로 식량위기 속 안
정적인 원재료 공급에 한발 다가선 상태
다. 롯데리아는 식물성 패티로 만든 국내
첫 패스트푸드 버거 '미라클버거'에 이어
'스위트어스 어썸 버거'를 잇달아 선보였
다. 샌드위치 브랜드 서브웨어도 식물성
대체육을 넣은 메뉴 '얼터밋 썹'을 내놔
다. 유희현 기자 yhh1209@

유현희 기자 yhh1209@



KYOBO 교보증권

금융투자협회심사필 제 17-04981호(2020.11.15~2021.11.14)
 교보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76-86호(2020.11.15~2021.11.14)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 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 전 학원입금 10% 청구 할인
 교보문고, 핫팩스,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및 어학시험 응시료
 10% 청구할인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등
 CU, GS25, 세븐일레븐 등 10% 청구할인
 SKT, KT, LG+이동통신요금 10%할인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리타당 100원 할인

CMA 금융서비스혜택

IP에 자동투자해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증축 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1



WIN.K 설치 후
비대면개회계실 시작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선택

3



주소 등
정보입력

4



신분증 촬영

5



계좌인증

6



신청완료
카드배송시작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중보이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지불보험에 따라 예금보통금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비대면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제1차 0.014%의 주식매매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지원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여야 아닌 국민 편”... ‘1호 사건’이 중립성 판가름

25년 산통 끝 결실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옥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쥔 공수처는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권, 기소권 행사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출발했다.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70년간 공고했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가 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입법 청원부터 출범까지 ‘25년’=참여연대는 1996년 공수처에 관한 14개 조문이 담긴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했다. 그러나 입법화하지는 못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공직비리수사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설립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놓고 참여정부 출범 후 공수처를 설치하려 했으나 검찰과 야당의 반발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양한 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17년 공수처 출범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019년 4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장실 점거, 필리버스터 등 대립이 이어진 끝에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출범하고 7월 공수처법이 시행되고서도 초대 공수처장 인선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이어졌다. 여당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후보자 추천을 강행하고 나서야 공수처 출범이 현실화했다.

◇수사팀 구성 난항 예상=3년의 임기를 시작한 김진옥 초대 공수처장은 곧바로 차장 인선과 수사팀 구성, 수사처 규칙 공포 등 공수처 가동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996년 참여연대 청원으로 시작 의장실 점거 등 대립 끝 국회 통과

초대처장 김진옥 “인사구성 두 달” 수사·공소 분리해 상호 견제키로

1호 사건, 월성 원전·윤석열 거론

김 처장을 보좌할 차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판사 출신인 김 처장의 수사 경험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향후 임명될 차장이 사실상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김 처장은 검찰·비검찰 출신을 가리지 않고 후보를 선정해 법조 경력이 충분한 인물 여럿을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적어도 다음 주 중엔 되지 않겠느냐”며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장 인선 과정에서 수사 능력과 정치적 성향 등을 중심으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수사팀 구성도 난항이 예고돼 있다. 수사처 검사를 뽑게 될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가 꾸려진 뒤에는 검사와 수사관 선발을 거치게 된다. 공모를 진행한 뒤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인사위가 의결해 검사 23명 이내, 수사관 40명 이내로 수사팀을 구성한다. 김 처장은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또 과학수사, 사건관리부서,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부서를 두고, 운영지원 검찰 등 공통부서는 최소로 편제했다.

인사위 구성과 수사팀 선발 등 일정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2~3개월 후에야 온전한 수사체로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1호 사건’ 월성 원전·윤석열 거론=공수처 출범은 여당이 예고한 ‘검찰개혁 시즌2’와도 맞물렸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 된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 수호에 급급해질 수 있



김진옥 공수처 초대 처장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옥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이라며 “외압을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공수처장의 첫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 여부는 ‘1호 수사 사건’에서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조계는 현 정권이 연루된 사건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도 후보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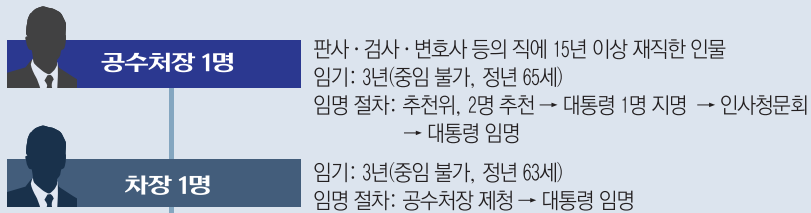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사건, 채널 A 감찰방해 의혹 사건과 가족·측근 비리 의혹 사건 등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처장은 “수사체로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사건을 모두 가져와서 할 수는 없다”며 “누가 봐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끄덕이는 사건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



“70년 기소 독점 제동 檢 폐해 반복 말아야”

기대 반 우려 반

법조계 “檢 견제 기구 의미” 무소불위 권한 군림 지적도

법조계는 21일 현판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기대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검찰의 진짜 권력은 기소보다 불기소 처분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어떤 사건을 기소할 것인가를 검찰이 독점하던 구조는 이원화됐다. 검찰총장은 물론 검사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손에 쥐려고 하니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태어난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팀 구성이 완료된 뒤 이후 행보를 지켜보고 제도를 정비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광범위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된 공수처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장 1인에게 막대한 권한이 집중된 가운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 ‘정권 사수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주어진 권력을 절제하지 못해 신뢰를 상실

한 검찰의 잘못을 답습하면서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를 견제할 수단은 아무것도 없다”며 “현재의 구조라면 결국 공수처 구성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권력 남용을 문제로 출범한 수사기관의 권력 행사를 자체적인 선의에만 맡길 수 있느냐는 취지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의 판단에 따라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판단한다는 내용 말고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 공수처장이 모든 사정 기관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요구하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건데 독립성을 보장한다지만 과연 공수처 구성원들 개인의 양심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며 “모든 제도는 개인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검찰의 과오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에 한정된 만큼 막강한 권력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평가라는 시각이 있다.

김종용 기자 deep@

與 “국민과의 약속 지켜” vs 野 “중립성 논란 불씨 여전”

정치권 엇갈린 반응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 출범을 권력 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며 자축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립성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19년이 지나서야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다”며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듯한 감회”라고 밝혔다.

또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검찰의 권한 남용을 뿌리 뽑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구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진

옥 처장에게는 “국민의 명령으로 공수처가 설치됐으니 공정과 투명의 원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온갖 어려움 끝에 지켜낸 국민의 기대가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다’는 기본 이치를 국민께 증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꾸준히 제기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감을 보였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고 기소권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지만,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마저 제거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한 불씨는 여전하다”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진옥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근거해 사건을 선택, 필요할 경우 국민의 의견을 듣고, 무엇보다 정치적 편향 없는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수처장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권력 눈치 살피는 정치적 방패막이, 정권 수호처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치로부터의 독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열린 백악관 직원 화상 선서 행사에서 "역사는 우리가 얼마나 품위 있고 현명했는지 평가한다"며 직원들의 단합과 존중을 강조했다. **2**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같은 날 취임식에서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가 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있다. **3** 미국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서 미국 국기를 부르는 가수 레이디 가가. 워싱턴D.C./AFP·AP연합뉴스



파리기후협약·WHO 복귀... '트럼프 지우기' 17건 서명

바이든, 첫날 행정명령 쏟아내... 전임자들 1건과 대조
美 다자주의 복귀·환경보호·반이민 정책 철회 등 핵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각종 행정명령에 줄줄이 서명하면서 '대규모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온난화 대책의 국제적 틀인 '파리협정'에 복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취소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의 상징적 정책을 차례차례 폐지해 나갈 방침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다수의 행정명령과 조치 등에 서명하면서, 강한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그는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파리기후협약 복귀와 연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종 평등 보장 등 15건의 행정명령과 2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현대 미국 대통령이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 가운데 가장 많은 개수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취임 첫날 한 건의 행정명령에만 서명했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뒤집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임기를 시작했다. 바락

오바마는 2009년 취임식 당일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았다. 빌 클린턴은 윤리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처리된 행정명령에는 △중동·아프리카 등 일부 이슬람권 대상으로 한 입국 금지 조치 철회 △미국 남부·멕시코 간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된 비상사태 해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 인가 취소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부실 대응과 중국 편향성 등을 문제 삼아 통보했던 WHO 탈퇴 조치도 중단시켰다. 취임 직후부터 전 정권이 추진하던 정책을 줄줄이 뒤엎음으로써 '트럼프 시대'와 단절하고, 신정부의 독자적 색채를 빠르게 찾아 나갔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미국 연방 기관 부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100일 동안 연방 자산 시설과 열차, 항공기 등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협약 재가입과 WHO 복귀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내뱉던 공약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첫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를 안전 보장상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새 행정부 과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파리협약 재가입을 위한 문서를 20일자로 유엔에 제출하고, 30일 후 파리협정에 정식으로 복귀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내정자는 "이는 세계에 다시 참여하려는 대통령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오늘 서명하는 행정적 조치의 일부는 코로나19 위기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가 오랜 기간 하지 않았던 기후변화와의 싸움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서명한 일련의 행정명령은 새 행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 과제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코로나19 대응과 다자주의 복귀, 환경보호, 반(反)이민 정책 철회 등이 바로 그것이다. AP통신에

조 바이든 취임 첫날 행정명령

코로나19	- 연방 정부 시설 내 마스크 의무화 - WHO탈퇴 절차 중단 - 코로나19 대응 담당관 신설
경제	- 주택 임차인 강제 퇴거 및 압류 유예 기간 연장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일시 중단
환경	- 파리기후협약 복귀 - 미국·캐나다 간 원유수송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 취소
평등	- 애국 역사교육을 위한 '1776 위원회' 폐지 - 성 정체성에 따른 직장 차별 금지
인구조사	- 비시민권자 인구조사 및 의회 대표자 할당 요구
이민	-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강화 - 주요 이슬람 국가 입국금지 조치 철회 - 미국 내 이민자 단속 확대 철회 -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위한 비상사태 효력 중지 - 라이베리아 이민자 추방 조치 취소

워싱턴D.C./AP뉴시스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측은 작년 11월 대선 승리가 결정된 직후부터 취임 초기에 취할 행정적 조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 초안을 작성했다.

바이든 취임으로 이날 새롭게 바뀐 백악관 홈페이지는 '바이든-해리스 정부 당면 국정과제'를 7개 항목으로 소개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기후변화 △인종 평등 △경제 △보건 △이민 △글로벌 지위 회복이 명시됐다. 변효선 기자 hsbun@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에 내리고 있다. 이곳에는 이들이 거주할 개인소유 마라라고 리조트가 있다. 웨스트팜비치/AP연합뉴스

마지막까지 '트럼프'식이였다

미국 역사상 첫 '셀프 환송식' "돌아오겠다" 정계 복귀 의지

임기 내내 파격적 행동으로 이슈의 중심에 섰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에도 온갖 화제를 모으며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에도 파격적 행보로 이슈를 모았다. 임기 마지막 날 143명을 무더기로 사면·감형하는가 하면, 퇴임 당일에는 역사상 최초로 후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채 '셀프 환송식'을 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0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 대신 본인의 환송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트럼프는 1869년 앤드루 존슨 이후 152년 만에 후임자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첫 대통령이 됐다.

셀프 환송식을 연 것은 트럼프가 최초였다. 그의 환송식은 레드카펫과 21발의 예포 등이 동원되는 등 국빈급 행사로 화려하게 치러졌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며, 이 나라는 위대하다. 여러분의 대통령이 된 것은 가장

큰 영광이자 특권이였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아오겠다.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정계 복귀 의지를 피력했다.

바이든에게 건네줘야 할 대통령 핵가방을 들고 떠나는 소동도 일조했다. 핵가방은 미국 대통령의 핵 공격 결정을 대비해 이러한 명령을 인증하고 핵 공격에 사용할 장비를 담은 45파운드(약 20kg) 무게의 검은색 가방이다. 이 가방은 항상 대통령 주변에 있어야 하는데 트럼프가 취임식에 참석해 바이든에게 건네는 대신 백악관을 떠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날 다른 핵가방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라 핵가방을 들고 플로리다까지 갔던 군사 참모는 이후 이를 다시 워싱턴으로 갖고 오기로 했다.

이 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비밀경호국(SS)에 퇴임 후 경호 대상이

아닌 가족들을 6개월 동안 경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그는 장녀 이방카 부부 등 13명에 대한 경호를 요청했다. 이는 연방법에 지정된 비밀경호국 경호대상(퇴임 대통령 부부·16세 미만 직계 자녀)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내 극한의 신경전을 펼쳤던 중국은 그의 마지막 퇴장 순간까지도 날을 세웠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안 보게 돼 속 시원하다, 도널드 트럼프!(Good Riddance, Donald Trump!)"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중국 외교부는 자국의 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정권 인사 28명에 대해 입국 금지 등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변효선 기자 hsbun@

추가 경기부양 기대… 세계 증시, 바이든 취임 ‘축포’



나스닥, 취임일 기준 최대 상승폭
다우·S&P, 36년 만에 최고 성적
유럽·亞 등도 급등… ‘바이든 랠리’

전 세계 금융시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맞춰 이른바 ‘바이든 랠리’를 이어갔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83% 오른 3만1188.38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1.39% 상승한 3851.8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0.07포인트(1.97%) 뚀 1만3457.25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3대 지수는 이날 종가는 물론 장중 가격 기준으로도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금융시장 전문매체마켓워치는 “역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당일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면 다우와 S&P지수는 1985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일 이후 36년 만에 가장 좋은 기록”이라고 분석했다. 나스닥 지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일이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취임식 당일까지로 기간을 확대해보면 미국 증시 상승세는 더 드라마틱하다. 팩트셋 집계 따르면 S&P지수는 지난해 11월 3일 대선 이후 이날까지 14.3% 상승했다. 선거 이후 취임식까지 상승률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미국 증시뿐 아니라 스톡스600유럽지수가 0.72%, 영국 런던 FSTSE100지수가 0.4%, 독일 프랑크푸르트 DAX30지수가 0.77% 각각 오르는 등 유럽증시도 강세를 보였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수요 위축 우

려에도 국제유가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0.5% 오른 배럴당 53.24달러로 마감했다.

간밤 뉴욕증시와 유럽증시에 화답하듯 아시아증시도 21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일본 증시 닛케이225지수는 0.8% 오른 2만 8756.86으로 장을 마쳤다. 인도 증시 센섹스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넘겼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예상보다 더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1조9000억 달러(약 2090조 원) 규모 추가 부양책에는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현금을 기존 1인당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리고 실업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3월에는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계획도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속한 백신 보급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 활동이 정상화 되겠다는 전망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백신 보급 속도보다 더 빠른 코로나19 확산세가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부채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인상도 증시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QMA의 에드 키온 최고투자전략가(CIO)는 “올해 하반기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면 증세 불안이 시장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일인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상공에 취임 축하 불꽃쇼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글로벌 증시도 ‘바이든 랠리’를 연출하며 취임 축포를 쏘았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관계재건 고대” 각국 정상들 바이든에 ‘축전’

EU 집행위원장 “가장 오래된 파트너와 새 출발 준비”… 日·獨·英 등 환영 인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에 전 세계 정상들은 일제히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삼던 일방 외교에서 다자 외교로의 전환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새로운 새벽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순간이자 다시 한번 백악관에 유럽의 친구가 있다고 깨닫게 하는 놀라운 증거”라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환영했다. 이어 “유럽은 가장 오래되고 신뢰받는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가 됐다”며 관계 재건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트위터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일본과 미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향후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관계를 실현하기 위

해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취임을 축하한다. 양국이 함께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진심으로 축하하며 독일과 미국의 새로운 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정부와 유독 관계가 좋지 않았던 국가들은 우호적인 메시지로 트럼프와의 작별을 기념하기도 했다. 미겔 디아스-칸넬 쿠바 대통령은 트위터에 ‘트럼프 정부가 쿠바 국민에게 행한 조치 연대기’라는 기사를 인용하며 지난 4년간 트럼프 정부가 어떤 제재를 해왔는지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미국과 국경·이민자 문제로 얽혔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취임식이 평화롭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미국 내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등의 공약을 신속하

게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정상들도 이날만큼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역시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양국이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며 환영했다.

우호적이었던 트럼프 퇴임으로 긴장했던 대만 정부는 안도하고 있다. 샤오메이 친 주미 대만 대표가 이날 바이든 취임식에 참석했다. 대만 외교부는 “미국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인 대통령 취임식에 대만 대표를 처음으로 초청한 것은 양국의 긴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미국 항공업계, 팬데믹 시련 지속 유나이티드, 15년 만에 최대 적자

작년 4분기 19억 달러 순손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미국 항공업계의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미국 대표 항공사 델타항공이 124억 달러(약 13조6425억 원)의 순손실을 작년 기록했다고 밝힌 데 이어 유나이티드항공도 15년 만에 최대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항공은 이날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4분기 19억 달러의 순손실을 입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직전인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6억41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4억1000만 달러로, 69% 급감했고 시장 예상치(34억4000만 달러)도 밑돌았다.

지난해 연간 순손실은 70억7000만 달러다. 이는 2005년 이후 15년 만의 최대 규모다. 주당 순손실 역시 애초 전망인 6.60달러에서 7달러로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승객의 빈자리를 화물 사업으로 대체한 결과 화물 매출은 77% 증가한 5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매출의 16% 규모로, 매

출 비중 역시 전년보다 3%포인트 커졌다.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항공 최고경영자(CEO)는 “2020년의 도전들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혁신과 빠른 의사결정에 달려 있었다”며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를 영원히 바꿀 놓았다”고 말했다.

회사는 2019년 기록한 실적을 2023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다만 올해는 여전히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올해 1분기 예상 매출은 전년 대비 65~70%, 수송객은 최소 5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경쟁사인 아메리칸항공과 유사한 수준의 전망이다. 아메리칸항공과 사우스웨스트항공은 다음 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발표한 델타항공의 지난해 손실은 4분기 7억5500만 달러를 포함한 124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날 유나이티드항공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96% 상승한 45.18달러에 마감했지만, 실적 부진 소식에 시간 외 거래에서 2.68% 급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연휴 기간 여행이 잠시 급증하면서 항공사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됐지만, 기대만큼 강력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세계최대 운용사 ‘블랙록’ 비트코인 진출

펀드 2곳에 선물 편입… 가상화폐 존재감 뚜렷해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투자에 나섰다. 전통적인 기관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더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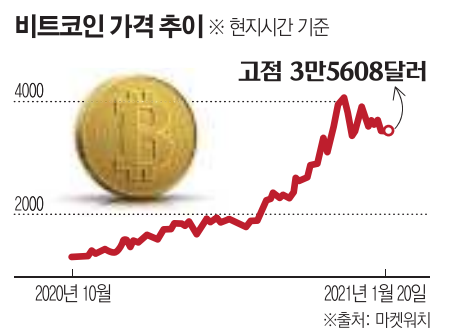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블랙록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두 개 펀드의 투자 설명서를 변경해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한 펀드는 ‘블랙록 스트레티지 인컴 오퍼튜니티스(BlackRock Strategic Income Opportunities)’와 ‘블랙록 글로벌 얼로케이션 펀드(BlackRock Global Allocation Fund)’다.

블랙록은 8조7000억 달러(약 9561조 3000억 원) 자금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지만, 지금까지 가상화폐 관련 상품을 다룬 적은 없었다.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 투

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2018년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고객들은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비트코인이 약진하자 그는 태도를 바꿨다. 핑크 CEO는 지난달 회의에서 비트코인을 언급하며 “다른 금융 상품보다 존재감은 여전히 작지만, 미래에는 전 세계 투자자가 거래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릭 라이더 블랙록 글로벌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지난해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분명한 수요가 있다”며 “이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 일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트코인 선물은 2017년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CME)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거래되기 시작했다. CBOE는 비트코인 열기가 식자 거래를 중단했지만, 2019년부터는 미국 인터컨



티넨탈익스체인지(ICE)가 비트코인을 취급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은 잇달아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보험사 매사추세츠뮤추얼라이프보험이 일반 투자 계정에 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모바일 결제 서비스 기업 스퀘어와 나스닥 상장사 마이크 로스트래티지도 비트코인을 사들였으며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송금 서비스 업체 페이팔도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블랙록의 참여는 비트코인의 존재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블룸버그는 풀이했다.

최혜림 기자 rog@



| 가로 1.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어가는 대표 리딩 금융그룹의 이름

| 세로 1.
신한이 새롭게 선보이는 부캐.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 청년, 소상공인 등 기회가 필요한 모두를 위한 프로덕션. 적재적소의 멘토링은 물론 투자 기회와 홍보까지! 기회를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세상 어디든 쫓아가는,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의 원동력을 만들어 낼 신한인들 신한아닌 신한같은 이 회사의 이름은?



신한을 새로 쓰면 기발한 프로덕션

꿈 있는 스타트업들이
도전에 주저하지 않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갈 수 있게

신한이 기회를 발견하고 키우는
기발한 프로덕션으로 거듭납니다

스타트업, 소상공인, 청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 함께
혁신성장의 내일로 나아가도록

Hope Together.
Grow Together.

“긴급자금 미봉책 불과… 손실보상·공제조합 도입을”

소공연·이투데이 공동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정이 취약해지고 있다. 정부가 급히 지원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쇄도한다.

이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내실 강화를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영업손실 보상제도와 소상공인 공제조합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이투데이는 공동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소상공인 금융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패널로는 이종욱 서울여대대학교 명예교수(경제학과 교수), 신진교 한국중소기업학회장(계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상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류필선 소공연 정책홍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현장에 대해 류필선 실장은 “영업제한·영업정지 업종의 경우 지난해 150일 이상 영업을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용평가사 매출정보 조회 결과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전국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56% 하락했고, 서울 지역의 경우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질 매출이 절반 넘게 줄었다는 건 수입도 반으로 줄었다는 게 아니라 수입 자체가 제로(0)가 됐다는 의미”라며 “법으로 영업을 막았다면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교수도 “방역을 위해 영업을 못 하게 된 곳은 자금흐름 애로 요인이 평상시 대비 3~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영업에 필요한 임대료, 대출이자, 인건비 등을 충당할 자금이 없어 현금이 흐르지 않고 현금흐름이 잡히지 않으니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짚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자금을 대거 투입했다. 일례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일부터 4조1000억 원을 투입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원에 대해 미봉책이라고 지적한다. 기준을 세워 같은 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결국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번 버팀목자금 지급을 보면 연 매출 4억 원을 기준으로 할 뿐 지원금액 자체는 평등하게 영업금지업종에 300만 원, 제한업종엔 200만 원을 주는 방식”이라며 “각 영업장의 건전성을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주니 받은 사람도 못 받은 사람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의 정책은 제삼자 입장에서는 속이 탄다”며 “사람을 잡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상준 교수는 “(버팀목자금 등) 지원금은 소상공인을 긴급히 돕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소상공인이 어렵고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물으면 아닐 수도 있다는 대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정의된 소상공인과 스스로가 소상공인이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다를 수도 있다”며 “소상공인은 누구이고, 코로나19 시대에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자체를 정의하는 과정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진교 회장이 “전체 소상공인에 같은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현 대책은 참 안타깝다”며 “따져보면 소상공인 한 명이 150만 원을 받은 셈인데 이 정도 지원금으로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은 사업장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봤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과 관련한 불만도 제기됐다. 류 실장은 “지난해 3월 실시한 1차 소상공인 긴급안정자금 대출을 3000만 원(한도)까지 받은 사람들은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자금마다 다르지만, 대출을 받고 폐업하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활용해 현상을 유지하기도, 폐업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는 소상공인과 관련해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신 회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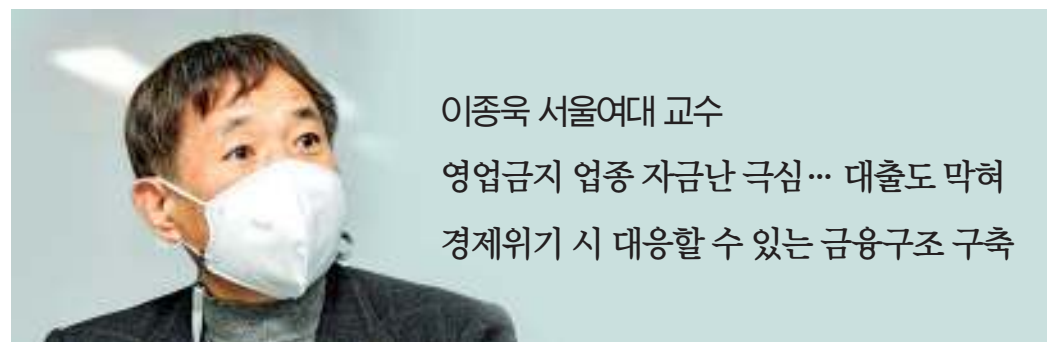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소상공인 금융 정책 방향 토론회

2021년 1월 21일(목) 주최 : KFME 소상공인연합회 이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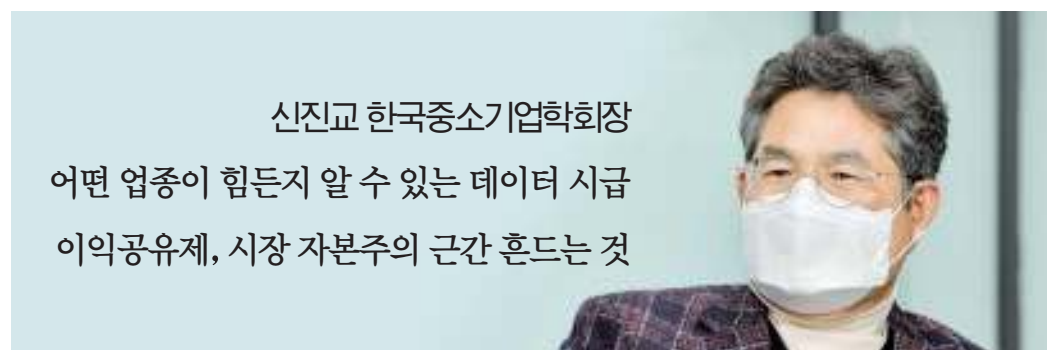
소상공인연합회와 이투데이가 21일 서울 동작구 소재 이투데이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소상공인 금융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상준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신진교 계명대 경영대학 학장(한국중소기업학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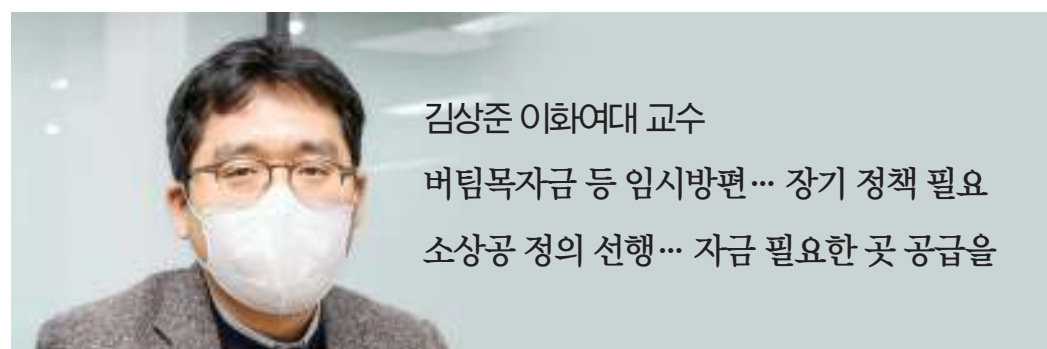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영업금지 업종 자금난 극심… 대출도 막혀
경제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금융구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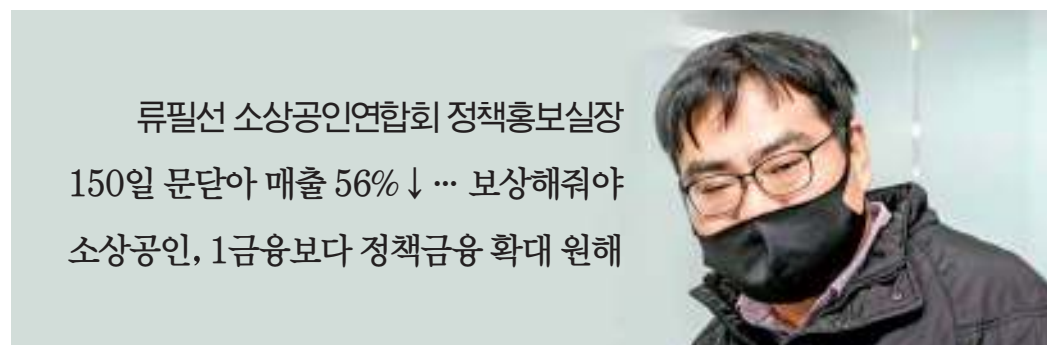
신진교 한국중소기업학회장

어떤 업종이 힘든지 알 수 있는 데이터 시급
이익공유제, 시장 자본주의 근간 흔드는 것



김상준 이화여대 교수

버팀목자금 등 임시방편… 장기 정책 필요
소상공 정의 선행… 자금 필요한 곳 공급을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

150일 문닫아 매출 56%↓… 보상해줘야
소상공인, 1금융보다 정책금융 확대 원해

“어떤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위험 상황에 처해 있는지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감광질망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을 활용해 소상공인 관련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데이터를 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화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정치권에서 보기에 공평하게 n분의 일로 나눠주는 ‘평등’이란 개념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기반을

구축해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 건전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각 지방자치단체와 소공연 등 관련 기관이 앞장서 소상공인 데이터를 모으고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세우자는 제언이다.

신 회장은 코로나19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만큼 확실한 소상공인 관련 정책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코로나19까지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해 왔고 그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며 “이런 (감염병 등) 사태가 반복됐을 때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상공인 관련 기관과 지자체 등 데이터를 위한 기관 인프라는 이미 충분하다”며 “이를 활용해 정책을 위한 인프라를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논의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역시 정확한 데이터가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놴다.

김 교수는 “지원금을 단순히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가진 장기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이익공유제는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데다 근본적인 지속가능성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신 회장은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가치투자한 성과를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존재해왔고 위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취지”라며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혜택을 본 기업이 힘든 이들을 도우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시장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기업 경영의 근본 원리와 배치된다”며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미래 환경과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식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소상공인 지원책 중 하나로 소상공인 공제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코로나19로 사회가 격변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이 금융 측면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류 실장은 “최근 진행한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1금융보다 정책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손실보상에 대한 법제화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 자구책 또는 대비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도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를 만들고 자체적인 신용등급도 설정해 소상공인도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면 어떨까 한다”며 “소상공인이 이런 경제위기에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세계적인 선례를 봤을 때 소상공인을 위해 시작한 금융기관도 결국 전략이 바뀌는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며 “공제조합과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등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서 자금을 필요한 사람들에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운영 방안도 면밀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담=최영희 IT중소기업부장
정리=이다원 기자 leedw@

당정 “연기금, 부동산 팔아 ‘K뉴딜’에 투자하라”

부동산 시장에 1100조 투자
“빌딩 가격 상승…상당한 버블”
부처 연기금·공제회 등에 권고
“무리한 간섭·반시장주의” 지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시중 유동성을 생산부문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해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한국판 뉴딜로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나온 메시지는 ‘부동산을 팔아 한국판 뉴딜에 넣어라’는 것이다.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상업용 빌딩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상당한 버블이 시작되고 있다.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자금을 줄여야만 한국판 뉴딜로 자금이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민간 여신 4000조 원 중 2200조 원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됐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실률이 증가함에도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측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풍부한 유동성은 양날의 검이다. 비생산적 부문으로 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채 증가, 자산 양극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며 “유동성이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는 주된 이유는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이니 부동산이 안정적 고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시장의 기대를 뒤집는 게 역제책의 핵심”이라고 호응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각 소관 부처가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한국판 뉴딜로 옮기도록 하는 거시경제운용안을 자산운용지침에 반영토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인센

티브로는 금융위원회가 나서 △장기투자 허용 △초과수익 우선배분·손실 우선보전 등 선택적 인센티브제 △투자위험 완화 등의 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이 자신들이 드라이브 건 한국판 뉴딜의 흥행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결정을 무리하게 간섭해 강제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부동산 강제 매각 과정에서 투자손실을 볼 수 있어 이 같은 발상은 반시장주의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오피스빌딩의 경우 아직 공실률이 한 자릿수로 그리

높지 않다. 또 판교 권역 A급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0.1%에 불과할 정도로 수요도 여전히 많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자로서는 부동산을 통한 임대료 수익은 여전히 주요한 수익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투자 자체를 문제시하며 투자 판단이 서지도 않은 한국판 뉴딜로의 투입을 떠미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여당 의도대로 부동산 자금이 이탈한 데도,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정부 압박에서 자유로운 해외투자자들이 몰려든다면 임대료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기관투자자들은 우려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택배 노동자 과로사 막는다

기사에 분류작업 안 맡기고 야간배송 제한… 택배비 오를 듯

정부와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하고자 택배 분류작업을 회사 책임으로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21일 택배 노사와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리한 내용이 담긴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가장 쟁점이 된 내용은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였다.

우선 합의문은 택배 분류작업을 ‘다수의 택배에서 타인 또는 본인(택배기사)의 택배를 구분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택배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분류작업은 ‘공짜 노동’으로 불리며, 그간 택배기사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이 됐다. 이러한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에게 떠맡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정부는 예산·세제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은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

거나,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할 경우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택배 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이 제한된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합의기구 소속 박홍근 의원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일환으로 ‘택배비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분류작업 인력이 늘어나면 이에 대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택배비용을 조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사회적 여론이 만들어진다면 논의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가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의장인 이낙연 대표가 택배 노사와 정부 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평화 가야 할 길… 美 바이든정부와 긴밀 협력”

“최대 교역국 中 주요 파트너… 日 도쿄올림픽 개최 협력”

문 대통령, NSC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일본과는 도쿄올림픽 개최 협력을 통해 관계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고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제정세와 주요 주변국들을 차례로 언급하며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외교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통합 속에서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해 나가길 기원한다”며 “우리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가 급격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

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증진의 주요 파트너”라며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에 대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 라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일환 기자 whan@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서 문혀

여야 3당 ‘입양특례법’ 발의
패트 정국에 민생법안 외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입양 절차에 사전위탁보호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전임 20대 국회 때 제안됐지만, 여야 정쟁에 묻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예비 입양 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해 적응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입양기관 판단에 따라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 문제가 발생해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는 사실 해묵은 문제라 전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사전위탁보호제를 법원 판단에 따라 시행하고 사후관리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주요 3당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에서 각기 금태섭·윤상직·최도자 전 의원이 이런 유사한 내용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무부는 ‘아동소평’을 언급하며 반대기도 했지만 대체

로 필요성을 인정했다. 즉, 주요 3당 모두 발의하고 전문위원과 관계기관도 동감했다는 의미다.

더구나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의무화 또한 이미 제안됐다. 금태섭 전 의원 법안에 대한 석영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입양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 충분한 사전조사와 전문가 조회 등을 거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 최종 허가를 하는 방식”이라고 제안했다.

해당 법안들이 심의됐다면 검토보고서에 실린 의무화 방안도 고려됐을 것이라 추측된다. 금태섭 전 의원의 법안은 2017년 8월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이제야 추진하는 사전위탁보호제 의무화가 4년 전에 조치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소위에서 거론되지도 못했다.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도 없었지만, 여권 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사회적참사특별법이 통과되는 등 여야 정쟁이 치열해 민생법안들을 모두 쟁점 여력이 없었다는 게 윤상직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전언이다. 당시 복지위원인 기동민 민주당·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을 기억도 하지 못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전기차, 비싸거나 효율 낮으면 보조금 축소

보조금 최대 1900만원 지원

올해부터 가격이 비싸거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전기승용차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하향 조정된다. 대기환경 개선 차원에서 전기택시에 대해 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무공해차 보급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는 전년보다 21.4% 많은 12만 1000대, 수소차는 49.2% 많은 1만 5000대를 보급한다. 충전기도 전기차용 3만 1500기, 수소차용 54기를 구축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의 경우, 보조금을 512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를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택시에 대해선 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

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일반 전기차에 대해선 국비 최대지원액은 800만 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주행거리 보조금을 낮추고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 에 따른 에너지효율보조금을 높인다. 정부는 지방비보조금도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차등함으로써 모델별 차등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90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개편된 기준에 따른 올해 최대 국비·지방비보조금은 전기승용차가 1900만 원, 수소승용차는 3750만 원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금융위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마통’ 제외”

〈마이너스 통장〉

기존 대출자 대상 소급 적용 안해
규제 발표 이후 유예기간 주기로
연봉 초과금만 상환 의무화 검토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의무화 방안의 적용대상에서 마이너스 통장(마통)이 제외된다. 기존 신용대출자들에게 대해 오는 3월에 규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면 적용하는 유예기간도 충분히 주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눠 갚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핵심은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누어 갚는 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지급한

다. 관리대책에 따르면 상환 과정에서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게 된다.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난 신용대출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문제는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이번 대책에 대해 소비자 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직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한 은행 영업점을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졌다. 동시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질의가 계속 올라왔다. 신용대출에 대한 돈을 갚는 것에 대한 질문도 쇄도했다. 아직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서민들은 혹여나 자신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노심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지금껏 신용대출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면 됐지만, 앞으로 일부 차주는 원금까지 매달 갚아야 해 당장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마이너스통장(마

통)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분할상환 기준이 되는 ‘고액’의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에 적용된다는 관측이나 오지만 금융위는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3월에 관련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확실적인 기준보다는 연봉 등 개인별 상황에 맞춰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예컨대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분할 상환 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연봉이 1억 원인 차주가 3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연봉을 제외한 2억 원에만 원리금 상환 의무를 적용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분할상환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오는 3월 발표하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 분할상환 의무가 도입돼도 시행 시기는 뒤로 늦춰진다는 의미다. 규제

시행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신, 마이너스 통장은 제외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신용대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는 불리하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분할 상환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단계적 적용 방식을 고려 중이다. 신용대출 전체 금액의 일부에만 분할 상환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다. 병원비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 등 신용대출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따라 일괄 의무적인 분할상환 도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과 시행 시기는 오는 3월에 발표하겠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신한銀 ‘더넥스트’ 추진
디지털 뱅킹 구축 가속

진옥동〈사
진〉 신한은행
장이 총 3000
억 원을 투자
해 미래형 디
지탈 뱅킹 시
스템 전환을 위
한 ‘더넥스트
(The NEXT)’ 사
업을 추진한다
고 21일 밝혔다.
급격한 금융 환
경의 변화에서 ICT
경쟁력이 중
요한 차별화 요소
가 될 것으로 판
단한 경영전략이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한은행은 ‘고객과 세상을 이어주는 디지털 플랫폼화’라는 새로운 ICT 비전을 선포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연한 고객 경험 △디지털 기반 업무 플랫폼 △디지털 중심 뱅킹 플랫폼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 △ICT-디지털 인프라 현대화의 5대 전략 수립을 목표로 디지털 뱅킹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에 집중할 계획이다. 은행의 데이터 관리 정책 및 기준을 정비하고, 데이터의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한 데이터 네비게이션을 구축한다. 궁극적으로 은행의 데이터 활용 및 분석 환경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진 행장은 취임 이후 은행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에 주력해왔다. 최근 신년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 여부에 조직의 명운이 달렸다고 강조하며 디지털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당부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에 최적화된 은행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고객 중심의 디지털 뱅킹 시스템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금감원 조직개편 키워드 ‘소비자보호·디지털 대응’

보험 등 분쟁조정 전담부서 신설
부서장 세대교체 감독역량 강화
사모펀드 검사조직 상시화 무산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중심으로 둔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혁신 등 시장의 신규감독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윤석현 원장이 언급했던 사모펀드검사조직 상시화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재편했다.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과 금융상품판매감독국을 통합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제도, 금융상품판매 관련 기획·제도 개선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으로 일원화했다. 금융상품분석실의 상품 단계별 분석기능에 소비

금감원 조직개편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 개편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과 금융상품판매감독국 통합
디지털금융 감독 검사체제 확립	IT·핀테크 관련 조직을 디지털금융 감독 및 검사부서 체제로 전환
신규 감독수요 및 감독수요 급증에 대응	회계기획감리실을 감사인감리실로 재편

자보호실태평가,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점검 기능도 보강했다.

금융민원총괄국에는 민원과 관련한 제도·분석·조사기능을 집중하고, 분쟁조정 전담부서를 추가로 신설해 실손의료비, 사모펀드 등 급증하는 분쟁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윤 원장이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사모펀드 전수조사 전담조직의 상시화는 수포로 돌아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번 인사에서는 정식 조직으로의 팀 승격은 보류됐지만, 계속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의 디지털화와 금융혁신 지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술(IT)·핀테크 관련 조직을 디지털금융 감독 및 검사부서 체제로 전환했다. 핀테크혁신실을 디지털금융 감독국으로 재편해 IT·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감독을 전담하고 신규 인허가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IT·전자금융업자, 마이

데이터 사업자 등에 대한 검사는 디지털금융검사국이 전담하게 된다.

그간 분산 운영된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담 감독·검사팀은 디지털금융 감독 및 검사국에 이관해 운영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신규감독수요와 감독수요 급증에 대응해 회계기획감리실을 감사인감리실로 재편했다. 회계법인의 공공성 강화에 대응하고 감독방식도 외부감사품질 제고 및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팀 단위 조직도 보강했다. 펀드 등록·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자산운용감독국 내 펀드심사팀을 2개팀으로 보강하고 최근 검사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자산운용검사국 내 검사팀을 추가로 만들었다. ESG 관련 대외협력 및 국제 공조 강화 등을 위해 국제국 내 지속가능금융팀도 새로 만들었다.

조직개편과 함께 부서장 인사도 단행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 강화에 맞춰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한 인재를 배치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역량을 끌어올렸다. 1968~71년생 부국장과 팀장을 중심으로 승진인사를 실시해 세대교체에 나섰다.

서지연 기자 sjy@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지원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회계관리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메일	전자결제	웹오피스
인사관리	내PC 원격접속	웹스토리지
팩스	거래처관리	명함관리
조직도	문서협업솔루션	할일관리
일정관리	노트	Tedge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만나보세요(근태관리, CRM, PMS, 경비청구, 팀빌딩, 도매인)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각 분야의 전문가가
완벽한 맞춤 설계로
고객의 자산을 완성하다



금융·세무·부동산·법률이 완벽하게 맞물려야
자산은 더욱 탄탄해지니까! 지금 NH AI100자문센터와 만나세요

NH AI100자문센터

| NH AI100자문센터 상담절차 |



가까운 NH농협은행
WM담당직원에게 상담 요청



NH AI100자문센터
전문가와 1:1 상담



고객
재무상황 진단



고객별
포트폴리오 제안



리밸런싱 및
사후관리

NH농협은행

※NH AI100자문센터는 전문가와 대면, 화상, 유선으로 상담이 이뤄지며,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의 WM 담당직원에게 상담 요청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0-2665(2020.08.31~2021.06.30) ※서비스 관리 부서: NH농협은행 WM사업부

18분 만에 80% 고속 충전하며 ‘커피 한잔의 여유’

SK네트웍스, 현대차와 전기차 전용 충전소 ‘길동 채움’ 오픈



SK네트웍스는 서울 강동구 길동의 주유소 부지를 국내 첫 전기차 충전소 ‘길동 채움’으로 개발해 21일 문을 열었다. 길동 채움에는 현대차의 국내 최고속 충전기 ‘하이차저’가 설치됐고, 1층 일부와 2층에는 스페셜티 커피 매장 테라로사 길동점이 들어섰다. 3층은 SK매직 브랜드숍과 공유주방으로 구성됐다. 사진은 테라로사 길동점 내부(위)와 ‘현대 EV 스테이션’.

사진제공 SK네트웍스

주유소, 복합문화공간 변신
국내 최고속 하이차저 충전기에
2층 테라로사·3층 공유주방
친환경차 셀프 시승 체험까지

SK네트웍스의 주유소가 ‘미래형 라이프스타일 충전소’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SK네트웍스는 길동 주유소 부지에 연면적 4066㎡(약 1300평), 지하 2층 및 지상 4층 규모의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충전소이자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개발한 ‘길동 채움’의 문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길동 채움은 ‘사람과 자동차 모두 채워가는 곳’이라는 콘셉트의 시설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설계했던 홍익대학교 민현준 교수와 테라로사 커피 김용덕 대표가 설계와 자문에 참여하며 라이프스타일 충전소의 가치를 구현했다.

전기차 충전소와 커피숍을 주요 시설로 구성했으며, 친환경 차량 시승센터와 SK매직 브랜드숍 등 미래형 라이프스타일을 느낄 수 있는 공간도 조성했다.

특히 1층에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충전소를 구축했다. 최신행 초고속 충전기 ‘하이 차저(Hi-Charger)’ 8기를 설치해 전기차 유지와 관리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하이차저는 출력량을 기준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350kW급 고출력·고효율 충전 기술이 적용됐다. 800V 대용량 배터리를 얹은 전기차를 하이차저로 충전하면 18분 이내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하이차저는 연결선에 부분 자동화 방식을 적용해 고객들이 연결선의 무게를 거의 느끼지 않고도 손쉽게 충전구를 연결할 수 있고, 듀얼 타입 충전구로 전기차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를 비롯해 올해부터 차례로 출시할 전기차 전용 모델에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800V급 충전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 이번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이 전기차 대중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대차 고객들은 하이차저 앱에 가입한 뒤 차량 인증을 완료하면 △충전 예약 및 결제 △충전 대기 중 전자책(e-Book) 및 차량 청소용품 무상 이용 △충전 요금 23%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차량 4대가 배치된 시승센터도

함께 운영해 고객 가치를 더했다. 시승 프로그램은 △차량의 주행 성능과 편의 기술 전반을 경험할 수 있는 ‘일반 시승’ △카카닉(Car+Picnic)을 체험해볼 수 있는 ‘특화 시승’ △오후 8시까지 시승할 수 있는 ‘야간 시승’ △직원의 직접 응대를 선호하지 않는 고객을 위한 ‘셀프 시승’ 등으로 구성된다.

1층 일부와 2층 전체에는 국내 대표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테라로사 길동점이 자리 잡았다. 서울에서 일곱 번째로 선보이는 매장이다. 3층에는 고객 체험 및 경험에 초점을 맞춘 SK매직 브랜드숍 ‘잇즈매직(it’s magic)’을 마련했다. 정수기·공기청정기·안마의자 등 제품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브랜드 체험공간을 운영하며, 프라이빗 다이닝이 가능한 공유 주방도 구성했다.

또한, 국내 음식 다큐멘터리 개척자로 손꼽히는 이육정 PD와 함께 이곳에서 ‘쿠킹 클래스’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하고, 유명 셰프가 참여하는 ‘쿠킹쇼’도 운영한다. 그뿐만 아니라 SK매직 신제품 론칭쇼, F&B 브랜드 연계 홍보 등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유창욱 기자 woogi@

SK이노베이션, 방전된 전기차 배터리 ‘통째 교체’ 사업 진출

중국 블루파크스마트 지분 투자
현지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운영
렌탈·충전·재사용 교두보 마련

SK이노베이션이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에서 교체식 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

배터리 제조뿐 아니라 렌탈부터 재활용까지 배터리 전 생애에 걸친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미래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이노베이션은 베이징자동차 산하 배터리 재사용 기업 ‘블루파크스마트에너지(BPSE)’의 지분 13.3%를 취득해 주요 전략적 투자자의 지위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투자금액은 양사 간 협의를 통해 밝히지 않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3년 베이징자동차와 배터리 제조 합작회사를 설립한 데 이어 이번 투자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중국에서 배터리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교두보를 마련

했다.

양사는 실제로 업무협약을 통해 ‘BaaS(Battery as a Service)’ 사업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키로 해,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존 배터리 사업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aaS는 배터리 렌탈, 충전, 재사용, 재활용 등 전기차 배터리 기반 서비스 산업을 뜻한다.

BPSE는 중국 공업신식화부(공신부)로부터 배터리 재사용(Battery Reuse) 사업을 인가받은 전문 기업이다. 북경지역 택시, 공유서비스(MaaS)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Battery Swap Station)을 운영하는 업계 선두 기업이다. 교체식 배터리 중국국가 표준 제정을 주도하며 관련 산업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사업자다.

양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첫 BaaS 사업은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다.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은 주유소처럼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방전된 배터리 팩을 충전된 배터리팩으로 통째로 교체하는 서비스다. 짧은 시간 안에 교체할 수 있

어 충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충전식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한다.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에 비치된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활용할 수 있어 향후 도심 내 분산 전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에서도 최다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국내에서도 배터리 교환스테이션과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포스코, 철광석 보급도 친환경 세계 최대 ‘LNG 추진선’ 운항

호주서 선적한 ‘그린호’ 광양 도착
기존 선박 대비 황산화물 99%↓
원료선 38척 중 20척 탈황설비

포스코 LNG 추진 해외 원료 전용선이 첫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친환경’ 운항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1일 포스코는 지난 12월 목포 출항 후 호주에서 철광석 18만 톤을 선적한 친환경 선박 ‘에이치엘 그린호’(그린호)가 전남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에 성공적으로 도착했다고 밝혔다.

그린호는 길이 292m, 폭 45m, 갑판 높이 24.8m로 현존 세계 최대 규모 18만 톤급 LNG 연료 추진선이다.

LNG 연료를 사용하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을 기존 벙커유 운항 대비 각각 99%, 85% 줄일 수 있다. LNG 연료를 사용하는 대형 벌크선 이 해외 운항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세계 첫 사례다.

선박들은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율 기준이 기존 3.5% 미만에서 0.5% 미만으로 낮

춰짐에 따라 LNG 또는 저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탈황설비를 장착하게 되어 있다.

포스코는 국제 규제에 앞서 선제적으로 2018년 12월 에이치라인해운과 기존 원료 전용선 2척을 LNG 추진선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선박 건조 완료 및 명명식을 거쳐 이날 성공적인 첫 운항을 마친 것이다.

포스코는 LNG 벙커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LNG 추진선 도입을 고민하던 해운사(에이치라인해운)에 장기 운송 계약으로 안정적인 물동량을 약속하며 상생을 실천하기도 했다.

포스코는 2척의 LNG 추진 선박 외에, 해외 원료 전용선 38척 중 20척에 대해 탈황설비 장착을 완료했다. 나머지 선박에 대해서도 향후 해운 및 조선사와 협의하여 LNG 추진선을 포함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역할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26일에는 그린호와 함께 건조된 친환경 쌍둥이 선박 ‘에이치엘 에코호’가 호주에서 석탄을 싣고 광양제철소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주혜 기자 winjh@



청담동에 ‘LG 시그니처 키친’ 쇼룸
LG전자는 21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초프리미엄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SIGNATURE KITCHEN SUITE)’ 청담 쇼룸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영업본부장 이상규 사장, H&A사업본부장 류재철 부사장, 고객 대표로 참석한 배우 김희애, 건축가 김찬중이 청담 쇼룸 3층 리빙관에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는 21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초프리미엄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SIGNATURE KITCHEN SUITE)’ 청담 쇼룸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영업본부장 이상규 사장, H&A사업본부장 류재철 부사장, 고객 대표로 참석한 배우 김희애, 건축가 김찬중이 청담 쇼룸 3층 리빙관에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대성 S라인 보일러, 롯데 보일러 사업 인수

대성산업의 보일러 제조 전문 계열사인 대성썬텍에너지스가롯데알미늄의보일러 서비스권을 인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성썬텍은 이번 인수를 통해 롯데보일러 대리점과 고객들에게 대성 S-라인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와 기타 대성의 제품을 공급하고 특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국산 1호 가정용 보일러 제작 업체로서 오랫동안 입지를 다져온 롯데 보일러는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31

일 가정용 보일러 사업을 철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성썬텍은 롯데 보일러 인수로 국내의 시장을 빠르게 확장할 방침이다. 대성썬텍은 브랜드 명성과 품질력을 바탕으로 롯데보일러 대리점에 양질의 기술력을 제공해 롯데보일러 대리점들의 판매 확대가 기대되고 롯데보일러 인수를 통해 넘버원(No.1)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의 시장 탈환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삼성전자 파운드리 인텔 반도체 만든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미국 인텔의 반도체 외주생산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미국 IT시장 조사업체 세미에큐리트(SemiAccurate)는인텔이 최근 삼성전자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텔은 21일 4분기 실적발표 행사에서 구체적인 반도체 생산 전략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인텔은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을 활용해 하반기부터 월 300mm 웨이퍼 1만5000장 규모로 인텔 칩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틴 공장은 14nm(나노미터=1억분의 1m) 공정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는 인텔이 CPU(중앙처리장치)보다는 GPU(그래픽처리장치)를 맡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오스틴 2공장 증설을 통해 5nm 이상 선단 공정에서 고부가제품 양산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인텔은 대만 TSMC와의 독점 계약 대신 복수의 생산 라인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인텔 외주생산 계약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고객사와의 거래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이재용 “지원 약속”… 준법위, 보폭 넓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육종 첫 메시지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준법위는 향후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7개 관계사(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삼성에스디에스·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 대표이사와의 만남에서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 경영진 역할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교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만큼, 앞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도 ‘실효성’에 중점을 둔 내용이 논의됐다.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에 결의를 거쳐 결정하고, 위원회가 재권고할 시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운영규정 개정안이다.

또 위원회는 관계사(삼성에스디에스·

26일 7개 관계사 대표이사와
준법 문화 정착 등 관련 토의
‘실효성’ 담보 방안 마련 중점

“고질적 위법행위 근절 총력
‘노동·소통’ 의제도 쟁길 것”

삼성SDI) 내부거래, 대외후원 안전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했고, 접수된 약 30여건의 신고, 제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준법위는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다.

앞으로 준법위는 삼성 ‘미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TF 등에 대한 준법경영 틀을 마련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준법위가 사업지원TF의 준법 감시를 종전보다 강화하면서,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이날 준법위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활동에 대한 각오도 내비쳤다.

먼저 준법위는 “예나 지금이나 위원회의 목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며 “삼성 안에서는 물론이고 삼성 밖에서도 준법과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감히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이른바 정경유착을 비롯해서 고질적인 여러 위법행위가 있었다”며 “그 유인은 안에서 촉발된 것도 있었고, 밖으로부터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에 의한 것도 있었다. 어느 것이든 모두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법위는 삼성 내부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평가했다. 준법위는 “회사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고, 컴플라이언스 팀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며 “준법 문화가 서서히 바

뀌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위원회의 향후 과제를 리스크별로 유형화하고 승계, 노조, 소통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해안을 모으고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준법위는 “4세 승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도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과 ‘소통’ 의제도 각별하게 챙겨나가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 부회장 부재 속에 삼성 주요 계열사 사장단이 첫 만남을 가지는 것에도 상당한 의미가 부여된다. 준법경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내부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지를 위해서는 상호 경영사항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업지원TF에 대한 준법위의 모니터링이 이뤄질 전망이다”고 주요 계열사 사장들이 일정 수준에서 상호 사업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송영록 기자 syr@

한진 이커머스 역량 강화
올 매출 2조3600억 목표

㈜한진은 2021년 경영목표를 ‘사업구조 혁신과 내실 강화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선제적 대응기반 마련’으로 삼았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매출액·영업이익 목표치는 각각 2조3575억 원, 1115억 원으로 정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진은 △이커머스 역량 강화와 CSV(공유가치창출) 활동 및 신사업 강화 △인프라 및 자동화 투자 지속 △IT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한 스마트 비즈니스 환경 구축 △기업문화 개선 등을 진행한다.

우선 급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까지 택배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할 방침이다.

사업 경쟁력 강화와 IT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올해 2135억 원의 투자도 단행한다. 대전 및 동서울 허브 터미널을 메가 허브 터미널로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지속 실행하고 원주 택배 허브 터미널을 신축한다.

이와 함께 운송관리시스템(TMS)과 택배시스템을 개선하고 RPA(로봇틱 프로세스 자동화) 도입으로 스마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HMM, 9번째 임시선박 투입

HMM은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9번째 임시선박을 긴급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23일 부산 HPNT(HMM 부산산항터미널)에서 출항 예정인 4600TEU(1TEU=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HMM 포워드호’는 3970TEU의 국내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미국 LA항으로 출발한다. 사진제공 HMM

2004년 이래 최저 매출·8년 만의 적자 르노삼성, 정규직 희망퇴직 시행

2019년 이전 입사 전직원 대상

르노삼성이동차가 2019년 이전 입사한 정규직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희망퇴직을 접수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 탓에 생산물량은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에 머물렀다. 영업 이익도 8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21일 르노삼성은 수익성 강화 등을 위해 ‘서바이벌 플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8년까지 입사한 회사의 전체 정규직에 해당한다. 내달 26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희망자는 28일 퇴직 처리된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법정 퇴직금 이외에 근속연수와 직급 등에 따라 위로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녀학자금 명목의 1000만 원을 비롯해 차량 할인 혜택, 전직 지원 서비스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르노삼성 측에 따르면 희망퇴직을 신청해서 받게 되는 모든 처우를 환산하면 평균 1억8000만 원, 최대 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측은 “내수 시장의 심화된 경쟁 구도 속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속

적인 고정비 증가가 맞물리며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희망퇴직을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르노삼성의 전체 판매 대수는 11만6166대로 전년 대비 34.5% 감소했다. 무엇보다 수출 부진에 발목이 잡혔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공장 전체 수출 물량 가운데 72%를 차지했던 닛산 로 그 생산이 3월로 종료돼 전년 대비 약 80% 감소했다. 지난해 르노삼성의 수출은 전년 대비 77.7% 감소한 2만227대에 머물렀다.

프랑스 르노 그룹 역시 수익성 강화를 중심으로 경영 방향을 전환하는 ‘르놀루션(Renaulution)’ 경영전략안을 발표했다. 라틴 아메리카, 인도와 함께 한국을 현재보다 수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지역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서바이벌 플랜’을 가동하고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

먼저 내수 시장에서 수익성 강화에 나선다. XM3 수출차의 원가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을 이뤄내며 부산 공장의 생산 경쟁력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휴온스**

 **엘루비**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인정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중 프로바이오틱스 기준, 2020년 4월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원료 L.acidophilus YT1의 인체적용시험결과

- 여성 갱년기 상태지수(KI) 11가지 총점 개선
- 갱년기 삶의 질 평가 지수(MENQOL) 4가지 항목 개선 확인



소비자 상담실 | 080-447-4700

판매사 (주)휴온스 | 제조사 (주)알피바이오



“대기업 기대지 않는 스타트업 성장환경 만들겠다”

제2벤처붐 숨은 주역 엑셀러레이터 릴레이 인터뷰

소재문 케이엑셀러레이터 대표

유니콘 기업수 세계 6위, 벤처투자 6.6조 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가득 찬 ‘제2의 벤처붐 시대’가 열렸다. 창업생태계를 조성한 데는 ‘엑셀러레이터’들의 역할이 컸다. 창업기업을 직접 선발하고 보육, 투자해 성장을 돕는 엑셀러레이터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았다. 2017년 53개사로 시작해 2020년 3분기 기준 290개사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총 1703개의 창업 초기 기업에 2253억 원을 투자해 영양을 공급했다. 제2의 카카오를 꿈꾸는 스타트업의 든든한 후원자, 엑셀러레이터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핀테크 전문 스타트업 육성

한 해 평균 150~200개사 보육

핀테크와 환경 관련 사업 연계

사회 기여하는 에코생태계 구축

지나친 정부 지원 오히려 ‘독’

민간 협업으로 경쟁력 키워야

“하얀고래(대기업)와 상어들(중견·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새우가 바로 스타트업이다. 고래와 상어들 싸움에 등이 터지는 건 새우다. 하나가 살고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케이엑셀러레이터는 코스콤에서 분사한 스피노프 기업이다. 핀테크 전문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 2월 설립됐다. 자본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스타트업을 연결해 이들의 시장진입과 스케일업을 돕는다. 서울핀테크랩을 위탁 운영하며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자체 프로그램 이외에도 K-글로벌, 팁스(TIPS) 등 정부지원 사업도 제공한다. 한해 평균 150~200개사를 보육하고 있다.

소재문<사진> 대표는 “우리의 목적은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 동반 성장하고 성공



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에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연관 산업들이 잘 되면 대기업 등에 기대지 않고도 우리끼리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시장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시행되면서 최근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돈이 오가는 분야인 만큼 제도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 규제는 생존에 큰 위협이 된다.

소재문 대표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면 규제 해법이 될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 대

표들이 있는데 이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금융은 공공의 인프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리스크를 정확히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데 ‘시장의 제도와 싸우려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문제, 나아가서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스타트업 대표와 팀의 분위기에서 정직함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그널을 확인하고 우리도 투자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최근 케이엑셀러레이터는 핀테크와 환

경을 연계한 스타트업 육성을 시도하고 있다. 환경부 지원을 받아 연세대학교와 환경금융대학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환경폐기물, 탄소배출권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사업을 핀테크로 녹이는 작업을 진행한다. 환경금융과 관련된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소재문 대표는 현재 창업시장의 한계점으로 정부의 지나친 지원을 지목한다.

그는 “우리나라 창업 초기 시장은 육성하고 보육해서 잘 만들어진 인재를 내보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나친 지원 사업들로 인해 오히려 본인의 경쟁력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엑셀러레이터도 사실 정부의 공공 영역에 가까운데 프리, 시드 단계 기업들은 파듯한 온실 속에서 보육과 지원금을 받으면서 정작 정확한 시장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이 덩치를 키우고 시리즈A, VC(벤처캐피탈)로 가게 되면 온실에서 들판으로 완전히 영역이 바뀌게 되는데 처음으로 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받고 시행착오를 겪는 기업이 많다”며 “창업 생태계와 시장을 키우는 건 정부가 아니고 민간과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논리를 더하거나 민간과 협업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져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플랫폼 국내 첫선… 법률자문 등 도움받아 시련 극복”

이운정 디렉셔널 대표

해외에서도 생소한 사업 모델

코로나·규제 막혀 서비스 중단

체계적 지원 통해 재오픈 준비

“해외에도 없는 모델을 처음 시도하다보니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았다. 지난해에는 공매도 금지 조치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힘들었다. 그때 도와주고 믿어준 게 케이엑셀러레이터다. 우리의 시도가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봐 준 점이 힘이 됐다.”

디렉셔널은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참



여할 수 있는 주식대차거래 플랫폼을 개발한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대형 증권사 홍콩 지부에서 일하는 금융인들이 모여 설립했다. 2018년 8

월에 한국으로 넘어와 법인을 세웠다. 현재 한국 시장은 특수하게 개인투자자가 50% 이상 차지하는 시장이지만 대차거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 간 주식을 빌리기 어렵고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

이운정<사진> 디렉셔널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가 안좋은 시각으로 비취

지는데 ‘개인에게 불공평한 시장’이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며 “잠재력이 크지만 비효율적인 주식대차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자산이 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기회 자체가 없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차입)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전략이다.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다시 매수한 후 주식대차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대차자는 일정률의 이자를 받는다. 미국이나 일본은

공매도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내외지만 한국은 5%에 불과하다.

그러나 생각보다 현실의 벽은 높았다. ‘대차거래를 증권사만 할 수 있다. 없다’는 규정이 없다보니 법리 검토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2019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업체로 선정되면서 신한금융투자와 ‘주식대차 지원 베타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라인한대 사태가 터지면서 잠정 중단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면서 서비스는 무기한 연기됐다.

어려운 시기에 케이엑셀러레이터 도움이 컸다. 서울핀테크랩 사무공간을 비롯해 멘토링과 법률자문, 마케팅, IR,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 무엇보다 사업 가

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얻었다. 공매도 재개에 맞춰 서비스 재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대표는 “우리는 주식을 보관하는 계좌가 없기 때문에 증권사와 연결해야 하는데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의미있는 트래픽을 남기고 우리의 서비스를 알려나가는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인투자자들에게 스케일을 만들어드리는데 플랫폼을 제공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서비스는 배타적 권리나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장치가 거의 없는데 기술특허 관련해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라며 “구조상 다른 기업들이 얼마든지 변형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는데 스타트업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글/사진 윤기쁨 기자 modest12@

LG U+ “겔S21, 자급제·알뜰폰 ‘꿀조합’ 혜택 가득”

11개 파트너사와 프로모션 진행 ‘9GB 2만2000원’ 등 특별요금

LG유플러스가 갤럭시S21 출시를 겨냥해 U+알뜰폰 파트너스와 함께 ‘꿀조합’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갤럭시S21은 22일 공식 출시된다.

‘꿀조합’은 자급제폰을 구입한 뒤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할인 요금제와 사은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이번 갤럭시S21 꿀조합 프로모션은 지난 해 10월 실시했던 아이폰12 꿀조합 프로모션에 이은 2탄이다.

갤럭시S21 자급제폰 구매 뒤 U+알뜰폰 파트너스 11개사에서 요금제를 가입하는 고객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할인 요금제를 제공한다.

총 5종 요금제로 △최저 2만2000원



LG유플러스 모델이 ‘U+알뜰폰 파트너스와 함께 꿀조합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있다.

(VAT 포함)에 데이터 9GB(소진 후 1Mbps) △최저 3만5750원에 180GB(소진 후 5Mbps) 등 5G 2종과 △최저 1만2100원에 일5GB(소진 후 5Mbps) △최저 2만2000원에 11GB(소진 후 3Mbps) △최저 2만7700원에 15GB(소진 후 3Mbps) 등 LTE 3종이다. 참여사업자별 요금제 가격 및 프로모션 내용은 상이하다.

U+알뜰폰 파트너스 전용혜택으로 갤럭시

시 S21 자급제폰을 KB국민카드로 구매시 10% 캐시백 및 6개월 무이자 혜택을 별도 제공한다. 갤럭시S21 울트라 기준 최대 15만9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체크카드는 할인이 불가능하다.

이번 프로모션은 U+알뜰폰 파트너스 총 11개 사업자와 함께 진행한다. U+알뜰모바일, 서경방송, 스마텔,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에스원, 여유텔레콤, 인스코비, 유니컴즈, 큰사람, 헬로모바일 등이다.

개별 사업자별 이벤트도 있다. U+알뜰모바일은 요금제 가입 후 자급제 단말 분실, 파손보험(5900원)을 신청하는 고객에 한해 6개월 지원하고, 헬로모바일은 추천으로 매주 1명에 금 3돈(100만 원 상당) 증정한다. 큰사람은 가입 고객 전원 대상 요금제에 따라 최대 2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네이버플러스, 20% 저렴한 ‘연간 멤버십’ 출시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이용권을 선보인다. 네이버는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면서, 멤버십을 꾸준히 이용하는 이용자의 가입 가격을 낮춘 ‘연간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네이버플러스 연간 멤버십은 4만800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월간 멤버십으로 12개월 이용할 때(5만8800원)보다 약 20% 저렴하다. 멤버십 가입 과정에서 ‘연간 이용권’을 선택하면 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그동안 이용자들 사이에서 ‘네이버에서 매달 10만 원 이상 결제하는 이용자는 가입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는 분석을 통해 많은 인기를 얻어왔다. 이번에 출시된 연간 멤버십은 충성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한층 늘린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적으로 8만 원 이상 결제하는 이용자라면 ‘안쓰면 손해’가 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관련 이용자 조사 결과, 연간 멤버십에 대한 이용자 선호도는 월간 멤버십의 선호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연간 멤버십 출시를 계기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장기적으로 애용하는 충성 이용자 층을 더 많이 확보하고 ‘락인(Lock-In)’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0년 6월 출시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약 6개월만에 약 250만 회원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멤버십 가입자의 쇼핑 거래액은 미가입자 대비 5배에 달한다”며 “이를 통해, 멤버십이 이용자들에게 높은 효용과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나아가 이런 흐름은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SME와 창작자의 매출 증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준 기자 tiaio@

온·오프라인 한곳에… 유통업계 ‘옴니채널’ 가속도

BGF리테일-네이버 업무제휴… ‘미래형 편의점’ 모델 구축 신세계百貨, 구매품 일괄 수령 가능 ‘익스프레썸’ 매장 내 설치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오프라인 매장
에서 그 물건을 찾아간다. 유통업계가 최
근 집중하고 있는 ‘옴니채널’ 마케팅의 대
표적인 사례다. 옴니채널 쇼핑은 온, 오프
라인 매장을 결합해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
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한 쇼핑체계를
뜻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확산
에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옴니채널 구축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월
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12조8521억
원)보다 17.2% 증가한 15조6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5조 원
을 돌파한 것은 2001년 관련 통계 작성 이
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통 유통업체는
협력 파트너를 찾거나 자사 온라인몰과 연
계를 강화하는 등 온·오프라인 채널 연결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옴니채널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네이버와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제휴를 맺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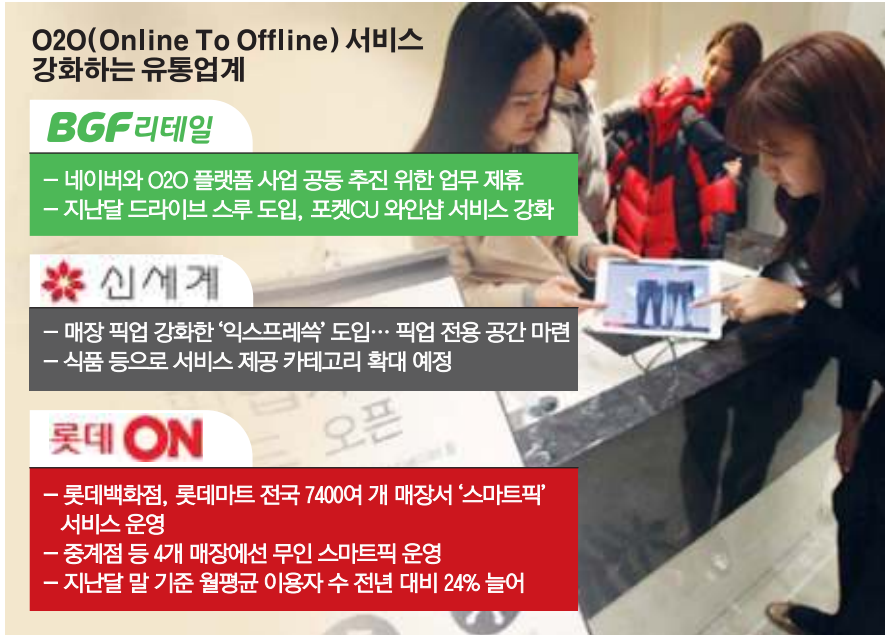
21일 밝혔다.

BGF리테일과 네이버는 이번 협약을 통
해 각사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플랫폼과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O2O 중심 신규 사
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BGF리테일은 이번 협력을 통해 O2O
상품 서비스 출시부터 미래형 편의점 모델
구축까지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네이버 내에 CU 브랜드관을 신설해
도시락 등 간편식품 예약 구매 서비스 도
입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 IT 솔루션을 접목해 차세대 편의
점도 준비한다. 안전인식 기술 도입과 빅
데이터 활용으로 미래형 편의점 모델을 만
든다는 계획이다. 오프라인 매장 기술력은
CU가, IT 기술력은 네이버가 제공하는 식
이다.

또한, 간편결제 및 멤버십 제휴를 통해
신규 고객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네이
버쇼핑과 N페이를 가진 네이버는 결제 체
널을 다양화할 수 있고, CU로서는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프로모션을 준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GF리테일과 네이버의 전략적 제휴는
처음이 아니다. 네이버에서 CU 배달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주문 서비스
를 현재 전국 5000여 점포에서 운영 중이
며 최근 네이버-CU 택배 예약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이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CU는 지난해 모바일리티 커머
스 플랫폼 ‘오원’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도입했고, CU 와인샵 스마트오더 시스템

을 구현하는 등 온·오프라인 연계 작업을
속속 펼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옴니채널 마케팅
이 이미 활발하다. 신세계백화점은 그룹
통합 온라인몰인 SSG닷컴을 활용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30일 본점 지하 1
층에 SSG닷컴 상품 픽업 전용 공간인 ‘익
스프레썸’을 선보였다.

‘익스프레썸’은 온라인몰 SSG닷컴에서
구매한 물건을 백화점에서 찾는 ‘매장 픽

업’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O2O 서비스
다. 기존 매장 픽업과 달리, 익스프레썸은
픽업 전용 공간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
을 한번에 찾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출시된 지 약 3주밖에 안 됐지만 소비자
반응은 뜨겁다. 이날 신세계백화점에 따르
면 이 서비스의 이용고객은 첫 주 대비 2배
늘었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에서 의류에 한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향후 추이를 보고 식
품 등으로 서비스 제공 카테고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온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에서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전국 7400여
개 매장에서 찾아가는 스마트픽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전국 98개 점에서 스마트픽
을 운영하는 롯데마트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월평균 이용자가 전년 대비 24%
늘었다.

특히 중계점, 수원 광고점 등 롯데마트
4개 점포는 매장을 물류창고화한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통해 무인 스마트픽 서비
스를 제공한다. 가령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한 후 퇴근 길에 냉장 시스템
이 적용된 캐비닛에서 안심하고 신선식품
을 찾아갈 수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롯데칠성, 비피도 손잡고 헬스케어 첫발

기능성 균주 발굴·마이크로바이옴 공동연구 등 협력

롯데칠성음료가마이크로바이옴전문기
업 ‘비피도’와 손잡고 헬스케어 사업에 진
출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롯데칠성음료 본사에서 ‘헬스케어 균주 개
발 및 마이크로바이옴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
약식은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와
지근억 비피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
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롯데칠성음료는 협약을 통해 롯데중앙
연구소의 식물성 유산균 연구·제품개발 역
량과 비피도의 인체 유래 유산균(비피도
박테리움) 연구·제조기술 역량의 시너지
를 통해 헬스케어 기능성 균주를 발굴하
고, 나아가 인체 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관
성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제품 개발을 추진
할 예정이다.

연구 대상인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롯데칠성음료가 20일 서울 송파구 롯데칠성음료
본사에서 비피도와 ‘헬스케어 균주 개발 및 마이
크로바이옴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내 유익균 및 유해균의 총체적 유전 정보
와 건강 및 질병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
구분야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
다.

식품, 치료제,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정부 5

대 그린바이오 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
다.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에
따르면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규모
는 2019년 811억 달러(약 89조 원)에서
연평균 7.6%로 성장해 2023년 1087억 달
러(약 12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비피도와 협업 외에도
앞으로 뉴노멀 시대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유아기에서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로 요구되는 건강 기능성 소재 및 제품 개
발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연계한
식단관리 앱 출시 등 개인맞춤형 영양관리
솔루션도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비피도와 협업을
통해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제품 개발
을 넘어 마이크로바이옴 특화 소재 개발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시너지를 낼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황금빛 명품 참외 대령이요” 롯데마트가 신축된 첫 출하를 시작한 경북 성주의 ‘성주
참외’ 판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주군은 국내 참
외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참외 특구 산지다.
사진제공 롯데마트

집으로 찾아온 밀양 얼음골 사과 “코로나 시대, 안방서 전국 맛집 탐방”

밀키트 제작·농산물 직배송 유통업계, 농산물 소비 지원

코로나19로 집 밖 외출이 줄어들자
유통업계가 지역 특산물 판매로 소비
자 잡기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강
원도와 손잡고 31일까지 롯데온 내 롯
데백화점몰에서 강원도 화천군의 싱
싱한 산천어 밀키트를 판매하고 있
다. 구이용 산천어 선어 세트(5마리)
가 1만5000원, 조림이나 매운탕으로
조리 가능한 산천어 밀키트가 1팩에
1만1000원, 밀키트 2팩 세트(조림,
매운탕용 각 1팩)는 2만 원이다.

NS홈쇼핑은 밀양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특집방송에 나선다. 이날 오후 5
시 20분부터 밀양이 자랑하는 특산물
인 ‘밀양 얼음골 사과’를 5kg들이 1박
스에 3만3900원, 2박스에 6만4900원
에 판매한다.

편의점 업계도 지역 특산물로 집콕
족의 발걸음을 유혹하고 있다.

GS25는 지난해부터 국립공원공단



강원도가 화천 산천어 축제 취사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자, 롯데쇼핑이 이를 돕기 위해
산천어 밀키트 판매에 나섰다.

과 손잡고 ‘국립공원도시락’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시리즈 1탄 ‘소백산
단양미늘불고기’에 이어 최근에는 장
성 새송이버섯을 사용한 3탄인 ‘내장
산새송이떡갈비’를 내놔다.

세븐일레븐은 충주와 천안 지역 대
표 특산물인 사과와 포도를 활용해 지
역 상생 과실주 ‘요새로제’, ‘두레앙
거봉와인’ 2종을 판매한다.

유통가가 지역 특산물로 이색적인
상품 판매에 나선 것은 현지 음식을
즐기려는 소비자들 직접 할 수 없는 고
객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관광객 감
소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지원
하기 위해서다. 남주현 기자 jooh@

올리브영, 신성장동력 ‘K-더모’ 힘준다

‘약국 화장품’ 더모코스메틱 강화… 매출 비중 2배 이상 성장

CJ올리브영이 더모코스메틱 제품군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일명 ‘약국 화장품’이라 불리는 ‘더모코
스메틱(이하 더모)’은 피부 과학을 뜻하는
‘더마톨로지’와 화장품을 뜻하는 ‘코스메
틱’의 합성어다.

CJ올리브영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여
파로 민감해진 피부를 더욱 안전하고 건강
하게 관리하는 ‘더모코스메틱’에 대한 관
심이 확대됐다. 최근 국내 병·의원 브랜드
가 선보이는 이른바 ‘K-더모’가 크게 주목
받고 있다.

과거 해외 브랜드 위주였던 국내 더모코
스메틱 시장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CJ올리브영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CJ올리브영이 지난해 하반기 매

출을 살펴본 결과, 국내 기업에서 출시한
주요 더모 브랜드 매출이 상반기 대비
51% 증가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메디 뷰티를 내세
운 ‘에스트라’, 제약 회사에서 선보이는
‘센텔리안24’ 등이다. 피부 전문가들이 만
든 브랜드 ‘닥터디퍼런트’는 지난해 11월
올리브영 입점 이후 최근 2주간(1월 6일~
19일) 매출이 첫 월 동기간(11월 6일~19
일) 대비 2배 이상 대폭 성장했다.

이에 따라 CJ올리브영은 올해 새롭게
떠오르는 국내 브랜드들과 손잡고 ‘K-더
모’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
이다.

올해 고기능성, 전문성을 두루 갖춘 신
진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K-더

모’의 비중을 예년 대비 2배가량 늘리고,
상품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
다.

CJ올리브영은병·의원 자산을 확보했거
나 고유 기술력, 특허 등을 보유한 브랜
드, 병원 등에 공식 유통되는 브랜드 상품
을 ‘K-더모’로 선보이고 있다.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더모 화장품을 한데 모은 ‘더
마 센터’를 운영하고, 공식 온라인몰에
는 ‘K-더모’를 컨셉트로 국내 브랜드를 모
은 전문관을 신설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대내외 환경에
영향을 받은 민감한 피부를 안전하고 건강
하게 관리하려는 소비자들 늘면서 전문
성을 내세운 ‘K-더모’의 인기와 성장세가
둔보인다”라며 “올리브영은 앞서 국내 화
장품 시장에 더모코스메틱을 선도적으로
소개해온 만큼, 올해 차세대 MD 성장 동
력의 하나로 ‘K-더모’를 적극적으로 육성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heyji@

“코스피 3000 새 출발점… 국민 자산증대 기여하겠다”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재철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간담회

“올해 금융투자업의 혁신금융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 또한 자본시장이 국민 자산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21일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나 회장은 “코스피 3000 돌파는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상징적인 모멘텀인 동시에 선진 자본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 “증시는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코스피 3000은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자본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여갈 수 있게 하려고 △금융투자업의 혁신금융 기능 강화 △자본시장이 국민자산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금융투자업계 신뢰 회복 △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투자형 ISA 도입 추진

증시 상승 지속성 위해 기관·외국인 참여 필요

금융투자산업 미래 대응력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금융은 자본시장이 가진 본질적인 속성이기에 협회는 신성장 분야에서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 금융 업무 범위와 상품 라인업 확대 등 금융투자회사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국민자산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 옵션 등이 도입되도록 노력하는 등 퇴직연금제도 개선으로 투자와 소득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공모펀드 활성화와 증권거래세의 완전한 폐지, 투자형 ISA 도입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 이후 협회와 업계는 전문가모운용사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면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서 투자 권유 등 판매 절차 개선을 지원하고 부동산 대체투자 상품화하면서 충분한 실사와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의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 기반 투자 교육 플랫폼을 마련하고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금융투자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투자 교육 플랫폼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투자 기본 지식과 이해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금융투자 점성시험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의 미래 대응력 향상을 위해 나 회장은 “비대면 중심 금융환경에서 금융투자업계의 선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며 “ESG 협의체를 구성해 ESG투자 활성화와 상품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나 회장은 증시 상승의 지속성을 위해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증시 상승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의 증시참여는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탄탄한 수요기반을 조성해 증시의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삼성전자 추격에… 또 도망가는 TSMC

TSMC, 시총 640兆… 삼성전자와 격차 114兆로 벌려
작년 4분기 최대 매출 이어 올 280兆 역대급 투자 발표
삼성, 비메모리 투자 2배 늘렸지만 오너부채 부담 클 듯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의 시가 총액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난해 4분기 분기 사상 최대인 14조원대의 매출을 올린 데다 올해 사상 최대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수요가 확실한 가운데 선두 업체가 ‘투자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위 삼성전자도 올해 역대급 투자가 예상돼 시총 격차는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삼성전자 시총은 526조원을 기록했다. TSMC 640조 원과 약 114조 원 차이다.

삼성전자는 주력 부문인 메모리 반도체(D램)와 휴대전화(모바일), 글로벌 가전 제품 등에서 세계 선두권에 자리 잡고 있고 파운드리 시장에도 본격적인 확장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TSMC는 반도체 위탁

생산만을 주력으로 삼성전자보다 높은 가치를 유지할 만큼 파운드리 시장의 입지는 굳건하다.

TSMC는 이달 14일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설비투자액이 250억~280억 달러(약 27조~31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투자(172억 달러·약 19조 원) 대비 최대 62.4% 증가한 수치다. 또 2020년 글로벌 5대 파운드리 업체 총설비투자액(244억 달러·약 27조 원)도 넘어서는 ‘역대급’ 규모다.

투자 싸움은 시총이란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역대급 투자로 추격을 재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 관련 투자는 2020년 6조 원에

서 2021년 12조 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장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없다는 게 부담이다. 그동안 이 부회장의 지휘아래 파운드리 전진터를 해쳐나왔다. 지난해 EUV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 ASML을 직접 찾아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운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만의 TSMC는 매년 영업현금흐름(OCF)의 60~70%를 설비투자에 투입해 왔고, 올해는 80~90%로 확대시킬 계획을 발표했다”며 “메모리 및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공급 부족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설비투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영건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7나노 공정뿐만 아니라, 대형 사이즈 칩셋에 대한 양산 경쟁 등 기술적 관점에서도 인텔 반도체 생산 유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신규 고객 대응을 위해 즉각적인 설비 투자 증설에 필요한 자금 여력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김우람 기자 hura@

한화자산운용, 줄어드는 ETF 어쩌나

하루 거래액 일년 새 220억→172억… 한국투자에 역전
‘액티브 펀드’로 반전 노력… 환경 관련 상품 잇따라 출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한화자산운용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 순자산가치 총액 기준으로 업계 5위였던 한국투자신탁에 자리를 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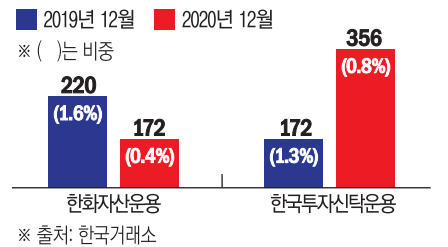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ETF 일평균 거래금액이 172억 원을 기록, 전체 시장에서 거래 비중은 0.4%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12월 일평균 거래금액 220억 원, 거래 비중 1.6%에서 크게 줄어든 성과다.

해당기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2019년 12월 172억 원에서 2020년 12월 356억 원으로 106% 늘었다. 전반적으로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대형사 2곳의 과점 체제가 공고해진 탓에 거래비중은 8.4%에서 0.8%로 낮아졌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1년 간 ETF 상품을 경쟁력으로 늘렸다. 2019년 말 38개에 불과하던 ETF 라인업은 2020년 12월 기준 46개로 21% 증가했다. 반면 한화자산운용은 48개에서 오히려 40개로 줄었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아리랑 ETF는 고배당주, 스마트베타 등 자산배분, 팩터 등의 상품 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지난해에

한화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 ETF 거래규모 비교 (단위: 억 원)



는 시장의 관심이 언택트, IT, 2차전지 등 테마형 상품에 쏠렸다”면서 “아리랑 ETF는 국내외 테마형 ETF 출시보다는 기존 상품에 집중했지만, 시장과 투자자들의 선택에 다소 괴리가 생겨 수탁고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화자산운용은 액티브 펀드 출시를 통해 시장의 니즈(needs)에 대응하는 분위기다. 특히 한화그룹이 집중하고 있는 ‘환경’ 투자를 중심으로 관련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월 38명이던 펀드매니저도 53명으로 늘었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ETF 운용과 전략을 한 팀으로 합치는 등 조직개편이 있었고, 대체펀드 쪽에 사람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손엄지 기자 eom@

폭스채널, 14년 만에 한국시장 철수

올해 중 청산절차… “디즈니 OTT 시장 진출 영향”

국내 최초의 미국드라마 전문채널인 폭스(FOX)채널 운영사인 티에프씨에프채널네트워크코리아(옛 폭스채널네트워크코리아)가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폭스 채널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캐스트와 폭스채널네트워크코리아의합작법인이 운영해 왔다.

21일 티에프씨에프채널네트워크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당기 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은 없다”며 “2021회계연도 중에 청산 예정임으로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원가법으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전액 당기 중 무형자산폐기손실(영업외비용)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진은 2021연도 중 회사를 청산하고 경영 활동을 중단할 의도가 있다”며 “이에 따라 청산을 기반해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법인은 폭스 인터내셔널 채널 미국 법인, 이십세기 폭스 인터내셔널 텔레비전과 체결한 판권 구매계약을 토대로 성장했다. 미국 인기드라마인 CSI 시리즈와 워킹메이커, 굿닥터 등이 대표적이다.

법인은 구매하는 판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프로그램 방송개시 시점부터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면서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은 보유한 판권을 모두 폐기하면서 무형자산 계정인 판권(전기 44억 4907만 원)과 소프트웨어(전기 2041만 원)는 모두 0원으로 정리했다. 무형자산 폐기손실(29억8851만 원) 역시 대거 반영됐다.

폭스 채널의 철수 배경에는 디즈니의 OTT 시장 전략과도 맞닿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디즈니가 공격적으로 OTT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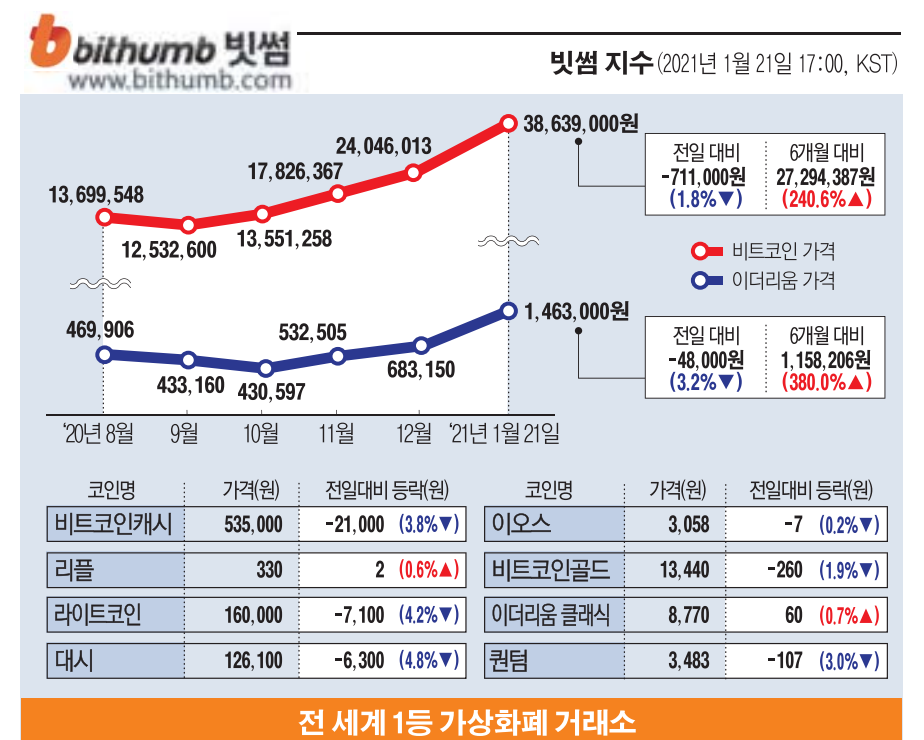
티에프씨에프채널네트워크코리아 주요 연혁

2006년 2월	(구) 폭스채널네트워크코리아 설립
2006년 4월	국내 최초 미국드라마 전문채널 ‘폭스 채널’ 개국
2013년 4월	개국 이래 첫 개편·위성방송과 IPTV 플랫폼 진출 본격화
2018년 7월	전 임직원 폭스네트웍스 그룹코리아 유한회사로 진출
2020년 9월	티캐스트와 채널 운영 계약 종료
2020년 12월	방송 종료(31일)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

에 진입하면서 독보적인 IP 구축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디즈니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다른 플랫폼에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마블 영화 등을 제공해왔지만, 지난해를 끝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미디어 환경 역시 OTT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채널 산업의 입지도 줄었다.

이에 디즈니는 지난달 자사 공식 트위터를 통해 “2021년에 디즈니플러스를 동유럽·한국·홍콩 등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디즈니플러스의 한국 시장 공식 진출을 알렸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정비구역 해제 위기’ 미성·목화아파트 한숨 돌렸지만…

여의도 ‘통개발’에 재건축 난항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로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였던 서울 여의도 미성아파트와 목화아파트가 극적으로 기사화 생하게 됐다. 일몰제 연장으로 재건축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을 해 첫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미성·목화아파트 재건축 사업구역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에 원안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3월 영등포구청이 일몰제 연장 착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지 10개월 만이다. 일몰기한 연장은 도계위 자문 후 서울시가 최종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동안 정비사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 뒤 2년 이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이 후 2년 내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정비구역에서 한 번 해제되면 강화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적용받게 돼 사업을

재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미성아파트(577가구)와 목화아파트(312가구)는 각각 1978년과 1977년에 준공된 노후 단지다. 두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을 위해 2009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꾸렸지만, 10년 넘도록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상황이 바뀌었다. 영등포구청이 두 단지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연장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미성·목화 일몰기한 연장…재건축 사업 발판 마련

정밀안전진단 추진 불구 서울시 ‘통개발’에 발목 잡혀

보궐선거에 희망 걸지만…주택정책 쉽게 안 바뀔 것

미성·목화아파트가 정비구역 해제 위기를 딛고 재건축 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지만,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여의도 ‘통개발’ 계획을 수립 중인 시는 2018년 한차례 마스터 플랜 수립을 보류한 뒤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시범아파트(1578가구)는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고, 지난 2018년 정비계획안으로 도계위 심의에 도전장을 냈지만 퇴짜를 맞았다. 시범아파트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을 알리기 위해 최근 안전사고백서까지 퍼냈다. 공작아파트와 수정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안 역시 보안을 이유로 반려됐다. 재건축 연한(준공 30년)을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들이 노후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미성·목화아파트도 최근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이지만 앞으로 사업 전개가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현장에선 “주민들은 이제 뭘대로 되라는 식으로 지쳐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오는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한 가닥 희망을 거는 모양새다. 서울시 수장이 바뀌면 꼭 막힌 재건축 사업 난관이 뚫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다.

다만 새 서울시장 출범 이후에도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 기조가 바뀌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하는 정비사업 정책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입주 2년’ 집 못파는 헬리오시티 이르면 3월 ‘집문서’ 생긴다

〈등기권리증〉

송파구에 소유권 이전 고시 신청
매매·임대 불리…주담대도 안돼
“족쇄 풀리면 아파트값 급등할 듯”



오래도록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 (옛가락시영아파트·사진)를 괴롭히던 소유권 이전 문제 해결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르면 봄부터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기대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20일 송파구에 소유권 이전고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실소유자 앞으로 아파트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옮기기 위해서다. 이전고시가 난 다음 날부터 아파트 소유자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확정된다. 조합에선 이달 중 이전고시가 나고 2월 말부터 아파트 소유자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거대한다. 법원 등기를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부터 소유권 이전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9510가구)인 송파 헬리오시티는 2018년 말 입주를 시작했으나 2년 넘게 소유권 이전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추가 분담금 부과를 위한 총회를 세 번 열었다. 1월과 7월 총회는 무산됐고 세 번째 시도인 11월 총회에서 조합원 추인을 받을 수 있었다.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면서 아파트 소유자들의 피해가 커졌다. 소유권 등기를 받

지 못하면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져서다. 조합원은 입주권 형태로라도 아파트를 팔 수 있지만 일반분양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수분양자)은 이마저 어렵다. ‘집문서’ (등기권리증)가 없으니 주택담보대출도 불가능했다.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면 이 같은 족쇄가 풀린다. 1558가구에 달하는 헬리오시티 일반분양 물량을 법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매매하고 임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 시장에 선 헬리오시티 아파트 거래가 지금보다 활발해지면서 값도 오르는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상반기 16억~17억 원대이던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5㎡형은 연말엔 시세가 20억 원을 넘어섰다. 앞으로 집문서가 없다는 약점마저 사라진다.

다른 아파트 예를 봐도 소유권 이전고시가 나면 아파트값이 뛰는 경향이 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마포한강아파트도 헬리오시티처럼 2년간 등기 문제로 고생하다 지난해 이전고시를 받았다. 이전고시 직전만 해도 8억 원대던 이 아파트 전용 84㎡형은 이젠 15억~16억 원을 호가한다.

박종화 기자 pbell@



속도 못내는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

206만㎡에 공공주택 1.4만 가구 공급
LH 토지보상·시 개발계획 승인 지연
주민과 마찰…준공 2027년으로 늦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불협화음을 내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원주민 이주자들에 대한 택지 공급 방식을 놓고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토지보상 지연으로 속도를 못내고 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삼패동 일대 약 206만㎡ 부지에 총 1조6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공사다. LH는 이를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공공주택 1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남양주시와 LH는 2019년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완공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토지보상에 들어가 올해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LH는 토지보상을 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아직까지 남양주시로부터 승인받지 못했다. 시는 경기도의 광역교통 대책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한 개발계획에

대해 승인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개발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 LH는 사업 초기 단계인 토지보상 일정부터 차질을 빚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토지보상 지연으로 준공 예정 시기는 당초 목표인 2024년에서 2027년으로 늦춰졌다.

LH는 이주자택지 공급 방식 문제를 놓고도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의 조성원가는 용도별로 3.3㎡당 150만~400만 원대로 추산된다. 그런데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적용할 경우 3.3㎡당 약 400만 원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공급면적 기준인 265~330㎡로 환산하면 3억~4억 원 차이다.

주민들은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적용할 경우 부담액이 크게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개발계획 승인 지연에 이주자택지 문제까지 겹치면서 주택공급 시기는 계속 늦춰지는 상황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광역교통 대책이 수립돼야 이를 반영한 개발계획대로 승인이 가능한데 시기는 미정”이라며 “이주자택지는 LH에서 기존에 약속한대로 권익위 권고에 따라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공공재개발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무순위 ‘줍줍’ 3월부터 무주택자만 가능

서울시는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후보지 8곳(약 13만㎡)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5일 공공재개발 사업시범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구역과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 8곳을 선정했다.

특히, 공공재개발 사업사업 후보지는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장(조합원 분담금 보장,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사업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정용욱 기자 dragon@

3월부터 아파트 잔여세대를 무작위로 추첨해 공급하는 이른바 ‘줍줍’ (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홈페이지에 수십만명이 몰리는 진풍경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일반청약 이후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당첨이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없어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제도 개선을 통해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 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檢 ‘김학의 출금’ 전방위 압수수색

공정위·외국인청·이규원 자택
법무부 “장관 직권… 적법 조치”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무실을 포함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도 포함됐다. 또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 사무실(공정위 법무보좌관실)과 자택, 대검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낸 인물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배당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법무부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소환 조さも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은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사건을 본청인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

수사에는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와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수원지검 평검사 3명 등 총 5명이 투입됐다. 이 부장검사는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했던 김학의 특별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아 처벌을 끌어낸 검사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대한 의혹은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로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으로 이첩된 바 있다.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 성접대와 뇌물수수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은 공항에서 체크인한 뒤 출국심사가

지마쳤으나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게 제지됐다.

이 검사는 심야에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형제65889)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1호)를 적어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점도 수사 대상이다.

또 일선 공무원들이 권한 없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뒤진 점에 대한 위반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16일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요청 없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스

秋, 마지막 검찰 인사… 원전 수사팀 일부 이동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1일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의 김형원 검사와 김수민 검사가 각각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서부지검으로 자리를 이동한다. 김형원 검사는 국제형사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전문검사로 발탁돼 UN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파견되며 김수민 검사는 모범검사로 선정돼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채널A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권)에선 김지윤 검사가 광주지검, 이권석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전보됐다. 과거 채널A 사건 수사팀 파견 시 수사 방향에 이의를 제기했던 천

재인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 검사는 수원지검으로 발령 났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 간 몸싸움을 목격한 장태형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배치됐다. 천재인 검사와 장태형 검사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전입해 이동 대상에 포함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으로 주목을 받은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 검사는 자리 이동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한다. 이 검사는 지난해 8월 공정위에 파견됐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검사 5명을 희망지에 발령냈다. 아울러 우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하고 출산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특정 희망지를 원하는 경우도 인사에 반영했다. 박기영 기자 pgy@

박사방 공범 ‘부파’ 15년刑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파’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 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서울구청장協 “중대재해 기업 입찰 제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제156회 정기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는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법에 저촉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인 지방 입찰 참가 기준을 높기로 했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의무는 아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시행규칙 제238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해 중대재해 기업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이 재해에 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구청장협의회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정부 등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시니어 품격을 위한 인생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월호 발매

시니어 공감매거진
BRAVO
Monthly Magazine
My Life
2021. 01 VOL.173

COVERSTORY 2021 뉴 시니어 라이프

PART1. 2021년 시니어가 알아야 할 트렌드 10
PART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역적 박신' 만들기
PART3. PISA로 노후 대비하기
PART4. 뉴노멀 시니어 랜선으로 리부트
PART5. 시니어 돌봄의 민낯
PART6. 여행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다

전통 정원의 멋
김주목작가
오직 '나'와 독대하고 싶어 지는 집

슬기로운 연금생활 정년 퇴직자의 불안한 노후자금 해법 찾기

돈세의 남성 직장인 오 씨. 퇴직금은 10년 전에 중간정산을 하고 새로 적립 중이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연금은 없다. 다행히 최근에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이 완료되어 저축 여력이 생긴 오 씨는 지금이 원하는 노후생활을 위한 현금흐름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요청해왔다.

한 번의 인생, 모험으로 답하다
티투리스트 조영진

책임감 있는 자유 노리는, 계절의 나이를 실다
가수 겸 정신과 의사 김창기

'낙숫물이 비워져 구멍을 내듯' 정치인의 삶 실어갈 것
변호사 원영섭

재미있는 성 인문학 사시장춘

최근 인문학이 대세다. ○○인문학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따라서 유행이다. 그런데 정말 한 인문학이 또 있을까?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고, 종족을 남기고, 늙고 죽어가는 이야기는 다 성에 있다. 성을 한자로는 '행'이라 표기하는데 어찌 이렇게 척박한 표현을 찾았는지 놀림까지 받는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문화 속에서 성을 재미있게 풀어본다.

라며, 그때는 그랬지 “급하면 전화로 원고를 불렀다”

왕년 전성기에 누렸던 최고의 명동답거나 예피소드 시간을 뒤돌려본 그 시절, 우리 때는 이것까지도 해봤어, 나도 그랬어, 그랬자라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추억 속 이야기를 꺼내보는 마당입니다.

50+ 워라벨
90년대생과 슬기롭게 일하는 방법

아무튼 약
약사가 알려주는 약국 사용설명서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충동적 시골생활 즐기는 게 답... 이장선거도 나갑니다”

충북 옥천군 김영남씨 ‘귀농 라이프’

김영남 씨의 귀농은 우연한 계기로 촉발되었다. 남들처럼 뚝 들어 면밀한 계획을 세우거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귀농지를 물색하는 식의 사전 작업을 면제해준 선연(善緣)이 그를 방문했던 것이다. 대전의 한 병원에 입원한 시어머니를 수발하다 옆 병상의 어떤 할머니까지 덩달아 수발한 게 귀농의 연줄이 될 줄은 그도 미처 몰랐다.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이 있고 가만 있어도 술술 풀리는 일이 있으니 인생이란 기묘한 게임이다. 영남 씨는 할머니와의 인연을 복이라 친다. 그렇다면 이 복은 하늘이 내렸나? 영남 씨의 가목한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세사의 인과(因果)는 대략 오차 없이 행진하는 법이다.

“퇴원을 한 할머니께서 당신의 시골집에 놀러오라 청하시더라. 병원에서 정들어 양어머니로 삼아 섬겼던 터라 막역한 관계 형성이 됐던 거였다. 해서, 남편과 함께 놀러갔더니 마을의 느낌이 무척 좋아 거기에 아예 살고 싶어지는 게 아닌가. 게다가 양어머니가 빈집을 추천해줬다. 뭘 따지고 썰 게 없었다. 살던 대전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서둘러 팔아 자금을 만들었고, 그 빈집을 사 허물고 황토 집을 나름 멋지게 지었다. 일사천리로 단숨에 귀농했던 거다. 2016년의 일이었다.”



-농원 규모가 엄청나다. 이 너른 언덕배기 토지를 어떻게 확보했나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물려준 유산이다. 전답과 임야로 이루어진 1만8000평짜리 터로 이 가운데 1만평을 과수원으로 개간해 운영한다. 복숭아도 꽤 많이 심었지만 사과 재배에 주력하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농원 일대의 풍광이 아름답다고 팔짝팔짝 뛰더라. 정작 나는 풍경을 즐길 시간 여유조차 없는데. (웃음) 귀농, 이거 정말 장난 아니다.”

-우연하고도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귀농이었구나

“그런 셈이다. 계획적이었다면 남편의 직장생활부터 청산했겠지만 그러질 않았다. 시골에 내려와서도 남편은 한동안 대전으로 출퇴근을 했다. 1년 이상 직장 일을 계속하다 그만뒀거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옆집 주민과 마찰이 빚어져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동네에서 아예 내놓은 기인이었다. 결국은 여생을 놀러 살고자 공들여 잘 지은 집에서 2년여를 살다 현재의 이곳으로 이사를 했지. 이게 전화위복이 됐다.”

-이곳은 풍광부터 평온하다. 산자락에 안긴 집이라 호젓하고. 이런 터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용케도 이사를 결심했던 때에 나온 매물이었다. 처음에 살던 집과 지적이지만 모든 여건이 더 좋았다. 기도원으로 쓰던 2층집이었다. 부지 2000평에 전답도 딸려 있어 금상첨화였다. ‘야, 여기가 낙원이구나, 이제 본격적인 귀농생활로 고고상이다!’ 내가 그렇게 외쳤던 거다. (웃음)”

-드디어 농사를 시작했나

“농사를 해본들 보람이 있겠나? 내가 원래 농사라는 직업엔 회의적이었다. 시골 출신으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알기 때문이었지. 그러나 남편은 농사에 뛰어들었다. 어쩔 수 없이 나도 복숭아대학을 다니는 등 농업에 관심을 가져봤지만 그건 나의 일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농사는 남편이 짓고,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은 너무도 많았다. 뒤편 맘먹고 덤벼들면 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넘쳤지. 문제는 최적의 일을 찾아내야 한다는 데에 있었다. 식용곤충농장이 적합해 보여 산업곤충 공부를 좀 해봤지만 비전이 보이지 않아 포기했다. 이런저런 모색을 하다 그냥 적성과 능력에 맞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답이 나오더라.”

-어떤 답을 얻었나

“도시에서 오랫동안 다육식물과 야생화를 즐기는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다육식물 전문 농원을

유산으로 받은 터에 과수원 만들고
다육식물 전문농원·장류사업까지
카페·민박객실도 마련 ‘복합농원’ 꿈
“스스로 선택한 일은 무조건 즐겁게”
행복한 삶 만드는 ‘긍정의 힘’ 믿어요

만들기로 했다. 된장이나 고추장을 맛있게 담그는 사람으로 알려졌으니 장류 사업을 병행해도 무난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기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일이 아니지. 그레 일단은 카페를 차려 생활비를 벌기로 하고 2층 공간을 개조해 찻집을 차렸다. 내겐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었다.”

그의 카페엔 특별한 게 있다

허세와 뽐 없는 겸허함으로 내 실력에 맞춰 사는 일. 그걸 지혜라 일컫지만 지지고 볶는 세파에 흔들리다 보면 과욕과 과속을 일삼다 표류하기 십상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잘해내는 인생은 꽃길이다. 그러나 정작 가시밭길을 헤매다 종 치기 쉬운 게 인생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영남 씨,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자신부터 기쁘게 하는 쪽으로 일을 구상했던 것 같다. 후미진 산기슭에 웬 카페인가 싶지만 개업 1년 남짓이 지난 현재 어지간히 자리가 잡혔다. 잘 돌아간다.

농원 전체의 담백하고 조촐한 풍색과 마찬가지로 카페 역시 소박하게 꾸몄다. 조화나 그림 액자, 소쿠리, 또는 특별한 것 없는 빈티지 장식품들로 공간을 치장해 동네 사랑방처럼 따사로운 분위기가 감돈다. 그래서인가, 인근 읍내 주민들이 찾아들어 단골 노릇을 한다. 멀리 대전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도 있다. 사뭇 독특하거나 매력적인 공간이라고만은 할 수 없지만 순탄하단다. 이 카페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뭘까.

“손님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도 하지만 우선은 첫값이 착해 좋다고들 한다. 차와 함께 제공되는 군것질거리로도 호감을 산다. 푸짐하게 내놓거든. 요즘 같은 철엔 군고구마와 군밤, 옥수수 튀밥을 한꺼번에 제공한다. 이렇게 파주고 남는 게 있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지만, 이 외진 산골짜기를 찾아주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일 뿐이지. 난 스스로 선택한 일이면 무조건 즐기는 태도로 임하는 게 옳다

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정말 즐거워지더라.”

아직은 불쏘시개 지피는 단계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도 목소리도 쾌활하다 못해 화통하다. 말방울 찌렁거리는 것 같다. 그건 오래된 습이다. 잘 이해할 수 없는 게 인간사라지만 낙관과 긍정으로 매사를 접수하면 남지 못할 벽이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밝은 천성도 한몫 거들어 잘 웃게 하는 안면근육을 발육시켰다. 그의 어려서부터의 꿈은 가수였다. 결혼을 하고서도 버리지 않은 꿈이었으나 남편의 반대로 포기했다.

“남편이 뒷바라지를 해줬다면 지금쯤 유명 가수는 아니라도 밤무대 가수 정도로는 뛰고 있을 게 틀림없다. (웃음) 애석하게도 접을 수밖에 없었지만 노래강사 자격증을 따 대전에서 갖가지 봉사활동을 했다. 웃음치료사로도 맹활약을 했다. 그거 아시나? 웃음 치료사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남들을 행복하게 하기 이전에 나 자신부터 행복해져 너무 좋더라. 인생이 바뀌더라. 매사에 긍정적인 인간으로 변화거든.”

우울의 늪에 빠질 뻔한 시절도 있었다.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사투를 했던 것인데 긍정심을 약 삼아 완치했다. 이후 삶이 한결 소중하고 감사하게 다가왔다고 한다. 삶의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좋은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걸 실증해보이기 위해 귀농의 나날들을 웃음으로 맞이하고 웃음으로 떠나보낸다.

농장을 둘러볼까. 집 뒤편 경사지에 비닐하우스 석동이 있다. 하우스 하나에선 다육이 화분들이 도란거린다. 영남 씨는 이 땅방보 식물들이 향후 농원의 성장 주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을 믿는다. 닭과 칠면조와 토끼를 기르는 하우스도 재미있다. 국화를 군락으로 조성한 산책로 맨 위편 평탄지엔 언제 보아도 푸근한 인상으로 무상의 보시를 하는 향아리 200여 개가 놓여 있다. 한판 야무지게 된장 사업에 뛰어들 것을 예고하는 풍경이다. 찜질방과 민박용 객실도 지어놔다. 아직은 불쏘시개를 지피는 단계이지만 영남 씨는 복합농원으로 키워나갈 포부에 부풀어 있다.

“친구들은 나를 두고 이미 성공한 귀농인이라 한다. 나를 보고 귀농을 따라 한 친구들도 있다. 그러나 같 같이 멀다. 귀농인의 귀감이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목적 지점에 도달하고 싶다. 마을 이장 선거에도 나갈 참이다. 왜냐고? 이장의 선의와 노력만으로도 마을 공동체의 풍토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서다.”

글/박원식 객원기자 bravopress@
사진/주민욱 프리랜서 minwook19@hanmail.net



THERA FEET

세상에 없던 프리미엄 발 관리기 - 휴심 테라핏

신발 속 하루종일 갇혀 있던 지친 발을 위한

[illegible]

당신만을 위한 똑똑한 발 관리사, 휴심 테라핏

플라즈마 기능 탑재 휴식만의 독보적 기술력을 담은 국내 최초 플라즈마 기능 발 관리기

피부관리용 LED 접목 얼굴 케어에 쓰이는 LED 레드파장 630nm 사용으로 발 피부 관리

지압돌기 + 공기압 1,060개 지압관과 7개 공기압 주머니로 손으로 주무르는 듯 근육 관리

40도 온열 관리 체온보다 약 3~4℃ 높은 온도로 발 근육 이완과 피로 회복 극대화

초경량 양발 분리형 1.3kg 무게와 부조형 설계, 무선 방식으로 어느 장소, 어떤 자세로도 OK

세탁 가능 분리형 내피 탈부착과 손쉽게 세탁 가능한 내피로 오염 및 세균 번식 걱정 끝

99.9% 항균 내피천 대장균, 황색포도상균, 폐렴균 99.9% 항균 기능성 내피천



100세트 한정판매 ~~428,000원~~ ▶ **298,000원** (99,333원×3 카드 3개월 무이자) | 온라인주문 **아람비스토어** 🔍 | 주문전화 **080-470-8888**

“BTS 티켓 가치 평가하며 감정평가사 알렸죠”

‘감동교실’ 운영하는 감정평가사협회

2013년부터...청소년 진로교육 공로로 교육부장관 표창
교안 만든 박혜준 평가사 “학생들이 체험하며 매력 느끼게”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연말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표창을 받았다. 2013년부터 ‘감동교실(감정평가사와 동행하는 감정평가교실)’을 운영하며 청소년 진로교육에 애쓴 공을 인정받았다. 감동교실은 지난 7년 동안 진로교육을 원하는 청소년이 있으면 다문화 가정과 산간벽지, 낙도 등 어디든 찾아가왔다. 최근에도 전북 부안군 위도와 경북 울릉군을 다녀갔다. 말 그대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이다. 1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에서 감동교실 기초를 닦은 박혜준 감정평가사와 최백열 감정평가사연수원 실장을 만났다.

감동교실 교육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청소년에게 생소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란 직업을 소개하는 것이다. 감동교실 교안(敎案)을 만든 박 평가사는 “저 역시 감정평가사란 직업을 다른 회사에 다니다 알게 됐다. 이렇게 좋은 직업이 있었는데 미리 알지 못해 아까웠다”며 “진로를 고민할 때 직업을 하나 더 알면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학생들이 ‘감, 정, 평, 가, 사’ 다섯 글자만 기억하고 있어도 성공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감동교실 수업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는다. 대신 학생이 감정평가사 일을 체험하게 하며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박 평가사는 학생들에게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 등 아이돌그룹의 콘서트 표를 친구에게 되팔 때 어떤 식으로 값을 매길지 고민하게 했다.

박 평가사는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가격, 본인이 원래 표를 샀던 가격, 콘서트 표로 친구가 얻을 수 있는 효용 등 여러 가치를 고민해 가치를 매기게 했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감정평가 현장에서 사용되는 원리들이다. 마지막엔 감정평가사에 평가 이유를 적고 서명하게 했다. 박 평가사는 “학생들이 어려운 용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며 즐거워했다”고 떠올렸다.

감동교실은 학생들이 부동산에 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도 돕고 있다. 박 평가사는 “부동산도 자산이긴 하지만 이젠 누군가는 집을 못 갖는 상황까지 왔다”며 “필수적인 거주 공간으로서 집과 부동산의 의미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서류에서



박혜준 감정평가사가 2018년 서울 서초구 상문고에서 감동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13년부터 ‘감동교실(감정평가사와 동행하는 감정평가교실)’을 운영하며 청소년 진로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연말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표창을 받았다.

확인할 점이나 부동산 범죄 예방 방안도 알려준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은 감동교실 감정평가사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 현장을 묻자 최 실장은 울릉도를 꼽았다. 그는 “섬이라고 정보 격차가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감정평가사란 직업에 관해 사전조사까지 해 오더라”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그해 울릉도에서 처음 열린 진로교육이었다. 그런 기회가 드물다 보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게 앞으로 감동교실이 어떻게 성장하길 바라는지 물었다. 최 실장은 “감정평가사만 교육 현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감정평가사가 일하는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작년에 학교까지 섭외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발돼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박 평가사는 “감동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 내 직업에 관한 자부심과 윤리의식을 더 높일 수 있었다”며 “더 많은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이런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더 밀접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종화 기자 pbell@

툰베리의 ‘마지막 일격’
떠나는 트럼프 모습에
“행복한 노인처럼 보여”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사진)가 20일(현지시간) 퇴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게 2년 전 조롱을 고스란히 되갚아줬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툰베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백악관을 떠나기 전 오른손 주먹을 들어 올리고 있는 사진과 함께 “밝고 멋진 미래를 기대하는 아주 행복한 노인처럼 보인다. 아주 보기 좋다”고 꼬집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년 전 자신에게 했던 비아냥을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다. 툰베리는 2019년 9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당신들이 공허한 말로 내 어린 시절과 꿈을 앗아갔다”고 질책해 화제를 모았다.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툰베리의 연설이 담긴 클립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그는 밝고 멋진 미래를 기대하는 매우 행복한 어린 소녀처럼 보였다. 만나게 돼 아주 좋다”고 비꼬았다.

기후변화를 중국이 조작한 가짜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기후변화 문제에 천착해 온 툰베리는 사사건건 부딪쳐온 56세 차의 유명한 앙숙 관계다.

변효선 기자 hsbun@



2019년 국토안보부로부터 금메달을 받은 데이비드 조(가운데) 백악관 비밀경호국 요원. 사진출처 미국 국토안보부 홈페이지

바이든과 함께 백악관 들어간 한국계 2인

경호 책임자 데이비드 조...영부인 일정담당 국장 지나 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한국계 직원 2명도 함께 들어가게 됐다. 두 사람은 각각 대통령 경호와 영부인 일정 관리를 담당한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경호 책임자는 데이비드 조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SS) 요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경호팀 2인자까지 올랐다.

그는 취임식을 앞두고 SS 내부 개편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 책임자로 임명됐다. 바이든 측은 경호 요원 일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치적인 유대 관계라고 우려해 요원을 교체했다.

데이비드 조는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당시 백악관의 경호를 관리하면서 북한 관계자들과 경호 협상을 잘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메달을 받기도 했다. 이 메달은 국토안보부가 우수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금메달이다. 백악관의 또 다른 한국계 직원은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일정 담당 국장인 지나 리(작은 사진)다. 그는 대선 캠프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의 일정 담당 국장을 맡았다가 취임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바이든 여사를 담당하게 됐다.

지나 리는 바이든 재단에서 1년 9개월간 일하며 선임 정책 담당을 수행했고,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일정 관리를 맡았다.

최혜림 기자 rog@

호반그룹, 협력사 80곳에 70억 포상



호반그룹(총괄회장 김선규·앞줄 가운데)은 21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호반파크 2관에서 '2021년 우수 협력사 시상식'을 열었다. 호반그룹은 우수 협력사 80곳에 감사패와 포상금 총 70억 원을 시상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게시판

직방, 여선웅 前 靑청년소통정책관 영입

직방은 여선웅 청와대 전 청년소통정책관을 커뮤니케이션실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여 부사장은 2014년 제7대 강남구의 회 의원 출신으로, 지방선거 서울지역 최연소 당선인으로 주목받았다. 2018년 ㈜썬카 새로운규칙그룹 본부장으로 영입돼 VCNC '타다' 서비스의 대외 정책·이슈 대응 총괄을 맡았다. 2019년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년소통정책관을 지내는 등 공공과 민간 영역을 넘나들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정영두 BNK연구소장, 금발심 민간위원

BNK금융은 정영두 BNK경제연구소장이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1일 밝혔다. 금융발전심의회는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융부문 정책 자문기구다. 정 소장은 휴름 부회장을 지낸 기업인으로 경남은행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고 올해 BNK경제연구소장으로 취임했다. 정 소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동남권 금융산업 발전과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금융정책과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국회 ◇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김사우 △국회사무처 허문규 △경호기획관 노형래 △국회도서관 정보관리국장 현은희 ◇이사관 전보 △국회사무처 박규찬 △국회사무처 정대영 △국회사무처 정환철 △관리국장 정연수 △의정연수원 교수 오명호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수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최병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 정경운 ◇부이사관 전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연광석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충섭 △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 서기영 △국회도서관 국회기록 보존소장 이진경 ◇관리관 승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송병철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송우아

◆법무부 ◇법무부 △검찰과 검사 김봉경 △형사기획과 검사 류승진 △공공형사과 검사 오창명 △국제형사과 검사 임하나 △형사법제과 검사 김진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나희석(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강정영 김종필 오미경 이희찬 장은희 천대원 박지훈 김영식 ◇타 기관 파견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정일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강경택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현철
◆조달청 △감사담당관 오선진
◆금융감독원 ◇국·실장 승진 △총무국장 최

병권 △공보실 국장 박지선 △정보화전략국장 장성욱 △법무실 국장 양진태 △자금세탁방지실장 이길성 △보험영업검사실장 박진해 △보험리스크제도실장 운영준 △외환감독국장 엄일용 △상호금융감독실장 권화중 △저축은행검사국장 이희준 △자산운용검사국장 김정태 △공시심사실장 민경찬 △특별조사국장 최광식 △회계관리국장 박형준 △감사인감리실장 민봉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김범준 △연금감독실장 김금태 △금융교육국장 이영로 △포용금융실장 김학문 △분쟁조정2국장 서정보 △신속민원처리센터 국장 홍창희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장동민 △광주전남지원장 권창우 △인천지원장 김경영 △강릉지원장 구원호 △뉴욕사무소장 송평순 △북경사무소장 김일태 △하노이사무소장 임춘하 ◇국·실장 전보 △디지털금융검사국장 겸 선임 국장 전길수 △비서실장 이창은 △감동총괄국장 함용일 △거시건전성감독국장 김준환 △디지털금융감독국장 김병철 △국제재정 겸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부센터장 김용태 △금융그룹감독실장 최인호 △보험감독국장 양해환 △생명보험검사국장 차수환 △손해보험검사국장 이우석 △특수은행검사국장 강선남 △은행리스크업무실장 박상원 △저축은행감독국장 박광우 △여신금융감독국장 양진호 △여신금융검사국장 정용걸 △상호금융검사국장 한홍규 △자산운용감독국장 이주현 △금융투자검사국장 최원우 △기업공시국장 김진국 △자본시장조사국장 박봉호 △회계심사국장 김은조 △금융상품분석국장 박종길 △금

융상품심사국장 이상아 △금융민원총괄국장 박중수 △분쟁조정1국장 유창민 △분쟁조정3국장 김재경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김미영 △감사실 국장 김정흠 △감찰실 국장 이보원 △부산울산지원장 홍길 △대구경북지원장 엄주동 △대전충남지원장 성수용 △경남지원장 김동규 △제주지원장 김봉균 △전북지원장 정기영 △강원지원장 김동현 △런던사무소장 장경은

◆예금보험공사 ◇부서장급 전보 △사회적가치경영부장 신두식 △기획조정부장 김홍태 △정보보호실장 남성모 △리스크총괄부장 김경록 △은행금투관리부 금융소비자보호지원TF(부서내실장급) 윤재호 △저축은행관리부장 진호정 △예금보험연구센터장 임일섭 △자산회수부장 임상욱 △기금관리실장 진주태 △기금운용실장 신재민 △조사총괄부장 이상조 △프놈펜사무소장 조계환 △비서실장 윤성욱 △외부파견(파산재단) 박동섭 △외부파견(금융감독원) 안병율 △외부파견(국방대학교) 윤철희 △외부파견(경찰대학교) 김동석 △외부파견(한국은행) 이원준 ◇부서장급 신규 보임 △예금보험연구센터 부센터장 임종호 △외부파견(서울지역통합실장) 강호성 △외부파견(통일교육원) 이종수
◆KB금융지주 ◇승진 △리스크관리부장 김보형 △재무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이수찬 △준법지원부 팀장(부서장대우) 김준성 △전보 △One-Firm전략부장 이성준 △회계부장 김상덕 △브랜드전략부장 박진영 △정보보호

부장 강성훈
◆스마트에프엔 △편집국 부국장 이병석

부음

▲이상기 씨 별세, 이병무(전 GS칼텍스 홍보상무) 씨 모친상, 박호순(김앤장 이사) 씨 시모상, 이주승(유이 대표) 씨 장모상 = 19일, 동국대일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3일 오전 5시 30분, 010-2323-3033
▲허점희 씨 별세, 심우현·우영·우식 씨 모친상, 심기문(서울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씨 조모상 = 21일, 서울 송파구 국립경향병원 장례식장 6·7호실, 발인 23일, 02-431-4400
▲최종세(전 동국대 교수) 씨 별세, 최현준(우아한형제들 팀장) 씨 부친상, 임소영(광운대 교수) 씨 시부상 = 2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2일 오전 9시 30분, 02-2258-5940
▲조상현 씨 별세, 조영훈(SK브로드밴드 커뮤니케이션추진그룹장)·정훈 씨 부친상, 허영희(광남중학교 교사) 씨 시부상 = 20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 발인 22일 오전 9시 20분, 02-3010-2000
▲최원영 씨 별세, 김복순 씨 남편상, 최병현(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직원)·병석(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글란(TV조선 심의실 차장) 씨 부친상, 최용석(한국정책방송원 KTV PD) 씨 장인상 = 20일,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2일 오전 8시, 02-2030-4444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전 주핀란드 대사

취임식은 늘 엄숙하고 새 지도자는 결의에 차 있다. 그러나 취임식이 끝난 다음 순간에 기다리는 것은 난마처럼 얽혀 있는 현실이다. 트럼프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생체기는 유혈이 낭자하다. 트럼피즘을 영원히 호리병 안에 담아 두려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취임연설에서 한 말들을 실현해야 한다. 어쨌든 고문을 위해서라도 정부를 미국 국민들의 현실이 맞게 구성한 그의 실험 또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과학 놀이터

한 중 탁

한국천기연구원
나노융합연구센터장



탄소(carbon)는 지구상의 생명체를 이루는 핵심 원소 중 하나이다. 탄소는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같은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탄소중립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탄소나노튜브, 카본블랙, 흑연(graphite), 그래핀(graphene)과 같이 산업적으로 응용되는 탄소 소재로 학계와 산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탄소는 가까이하고 싶기도 하고 멀리하고 싶기도 한 물질이다.

탄소는 핵 주변을 돌며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원자가전자(原子價電子, valence electron)가 4개인 구조로, 4개의 다른 원소와 결합할 수도 있고 3개 또는 2개의 다른 원소와 결합할 수도 있다. 그중 3개의 결합을 이루는 구조는 나머지 전자 하나가 이동 가능해 전기가 통하는 전기전도성 소재로 활용된다. 이렇게 3개의 결합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 미국의 이번 정권 이양은 매우 특이했다.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못지않게 이임하는 대통령의 동정이 세간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떠난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 연유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는 모습을 미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긴장된 가운데 지켜보았다. 무슨 불미스러운 소동이나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백악관을 떠나는 그의 모습은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백악관을 떠나는 것을 기뻐했지만 끝은 어디까지나 끝이었다. 그는 앤드루 공군기지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나는 돌아올 것’이라고 했지만 그 말이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탄 공군 1호기가 플로리다를 향해 이륙하는 순간 공항에는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inatra)의 ‘마이웨이(My Way)’의 마지막 소절인 ‘I did it my way’가 울려 퍼졌다.

트럼피즘으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현상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원인(cause)이기보다는 징후(symptom)라는 말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에 나

타난 특이한 현상들은 미국 사회에 누적된 근본적인 모순이나 병리현상에 기인한 것이며 트럼피즘은 이런 근원들이 밖으로 표출된 징후라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11월 3일 대선 이후 그가 보인 행적, 특히 미국 의회 난입 사건을 전후한 언행과 취임식 날 그가 보인 웅졸한 행태를 보고 나서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다. 플로리다로 떠나기 전 고별 연설에서 열거한 그의 치적들이 사실인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그나마 성과들을 다 가먹었다. 의사당 난입 사건은 그의 지지 기반을 크게 위축시켰다. 그가 워싱턴을 떠나면서 선택한 노랫말 ‘I did it my way’처럼 트럼피즘은 트럼프의 것이었고 이제 트럼프가 떠났으니 트럼피즘도 미국과 작별을 고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바이든 시대의 과제들은 많은 부분 트럼프 시대에 의해 규정되어버린 것도 사실이다. 150년이 넘는 전통을 깨고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 있는 취임식장의 분위기가 가벼울 수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연설 내내 단합, 상호존중, 진실을 강조했다. 그는 단합만이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보수하고

(repair) 되돌리고 치유해야 한다고 했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전면 전쟁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존중하자고 했다. 사실이 조작되고 만들어지기까지 하는 문화를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듣고 지켜보라고 했다. 그리고 난 뒤에도 반대한다면 그래도 좋다고 했다. 평화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힘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내 말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반대가 분명로 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약속합니다. 나는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사랑하는 조국을 향한 노정객의 절규처럼 들렸다. 그의 언어들은 평범했지만 시의 적절하고 진지했다. 연설 도중 코로나19 희생자에 대한 묵념은 그가 말한 치유의 시작처럼 보였다.

바이든의 취임식은 연설뿐 아니라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매우 상징적이고 시사적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종, 성별 등에 있어서 미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람들로 내각을 꾸렸다. 그의 취임식 무대에 등장한 인물들도 그런 고려가 드러났다. 레이디 가가가 미국 국가를 부르고 흑인 팝 가수 제니퍼 로페즈

가 축하를 불렀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 컨트리 가수 브루클스는 공화당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청바지에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무대에 나타났다. 젊은 흑인 여성 어맨다 고먼이 축시를 낭독했다. 다른 사람들의 팔(arms)을 잡기 위해 무기(arms)를 내려놓자는 운운은 절묘한 것이었다. 그는 노예의 후손이며 싱글맘이 기른 강마른 흑인 여자 아이가(a skinny black girl) 대통령이 되는 것을 꿈꿀 수 있는 시대라고 말했다. 그에게서 마치 이 시대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보는 듯했다.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들어왔던 원칙적인 수준으로 말했다. 동맹을 보수하고 힘이 아니라 모범으로 세계를 리드하겠다고 했다. 북한을 포함하여 특정 지역이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취임식은 늘 엄숙하고 새 지도자는 결의에 차 있다. 그러나 취임식이 끝난 다음 순간에 기다리는 것은 난마처럼 얽혀 있는 현실이다. 트럼프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생체기는 유혈이 낭자하다. 트럼피즘을 영원히 호리병 안에 담아 두려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취임연설에서 한 말들을 실현해야 한다. 어쨌든 고문을 위해서라도 정부를 미국 국민들의 현실이 맞게 구성한 그의 실험 또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탄소 원자, 그래핀의 거리두기

으로 가장 안정된 육각형 결정구조가 2차원 평면에 이어진 구조의 탄소 동소체가 바로 그래핀이다. 그리고 그래핀이 차곡차곡 쌓인 구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연이며, 흑연은 광산에서 채취할 수도 있고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사용되는 숯에서도 발견된다.

흑연 구조에서 그래핀은 일정 거리를 두고 떨어져 쌓여 있다. 원자는 기본적으로 척력(斥力)을 가지고 있다. 두 개의 원자가 붙게 되면 서로 밀쳐내게 된다. 두 개의 원자가 일정 거리 이하로 가까워지면 전자가 돌고 있는 전자궤도가 서로 중첩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척력이 발생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원자 간 척력은 아주 짧은 거리에서 발생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척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서로 반발하게 되므로 원자 간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지더라도 원자 개념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만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연필의 흑연은 그래핀이 일정 거리를 두고 쌓여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글씨를 쓰면 흑연이 미끄러지면서 층이 분리되고 이것이 종이에 묻어 글씨가 써지는 것이다. 그래서 연필 글씨를 고배율로 관찰하면 그래핀을 발견할 수 있다. 흑연으로부터 그래핀을 최초로 분리해내 2010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러시아 출신 물리학자 안드레 가임과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역시 연필심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 떼어낸 뒤, 테이프에 달라붙은 흑연 가루를 반복해서 유리 테이프 로 떼어내는 방식으로 그래핀을 얻을 수 있었다.

탄소 원자 간 또는 그래핀 간의 거리 두기 구조로 이루어진 흑연은 휴대폰이나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차전지의 음극 재료로 쓰인다. 이차전지의 충전기를 전원에 연결하면 양극에 있는 리튬이 빠져

나와 분리막을 통과하여 음극으로 이동하며 에너지가 축적된다. 이때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이 바로 음극의 층상구조를 이루고 있는 흑연이다. 이러한 이차전지의 음극과 양극 사이에서도 거리 두기가 필수이다. 음극과 양극은 이온이 지나다닐 수 있는 전해질로 채워져 있는데, 만약에 음극과 양극이 붙어 있게 되면 서로 간에 전기가 통해 버리기 때문에 전지가 망가지거나 폭발하게 된다. 그래서 강제로 거리 두기를 실현하기 위해 분리막을 중간에 두게 된다.

이처럼 거리 두기는 코로나 시대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원자들, 전극들 간에도 필수적이다. 아주 미세한 과학의 영역이지만 거리 두기로 물리적 원리가 구현되고 그 응용을 통해 인간 생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이 성공적 방역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길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피터 L. 번스타인 명언

“추는 한 방향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경제학자이자 투자자문가. 세계적인 베스 트셀러들을 저술한 금융 전문 저술가이다. ‘월스트리트의 구루’로 통하는 그는 해박한 경제학 지식과 거시적 통찰력, 논리적 접근방법을 배경으로 투자에 있어 대중적인 길보다는 소신을 강조하였다. 이런 그의 투자관은 탁월한 성과로 이어졌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19-2009.

☆ 고사성어 / 일엽지추(一葉知秋)

문록(文錄)에 나오는 말에서 유래했다. “당나라 사람이 시를 지어서 가로되, 산속의 중은 갑자를축하며 세월을 헤아리지 않아도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온 세상이 가을인 것을 안다(載唐人詩曰山僧不解數甲子一葉落知天下秋.)” 사물의 징조를 보고 대세를 살핀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 시사상식/초이스 맘(choice mom)

자발적 비혼모를 뜻하는 ‘선택에 의한 부모(single mother by choice)’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결혼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로 아이를 낳거나 입양해 키우는 비혼모를 뜻하며, 이들은 아이를 직접 낳을 경우 정자 기증 등을 통해 출산한다. 우리나라는 미·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는 것에 대한 현행법상 금지 규정은 없으나, 해당 시술을 진행하는 병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 유머 / 여행사 서비스

항공기를 자주 이용하는 비즈니스맨을 위해 여행사가 서비스 상품을 내놔다. 부인과 함께 탑승하면 부인의 요금을 절반으로 깎아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 여행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가정으로 편지를 보냈다. “남편과 즐거운 여행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행을 많이 이용해주시십시오.” 며칠 지나 부인들이 보낸 답장이 밀려들었다. “무슨 여행이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정인이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촉발된 가운데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보호위탁제도 관련 발언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문 대통령은 입양제도 개선책을 들어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의도다. 일각에선 ‘아동 쇼핑’, ‘반품’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취소란 아예 없는 개념은 아니다. 민법 제884조에 따르면, 입양의 취소는 일정한 입양 취소 원인이 있을 때 취소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한 파양 사례도 속속 드러나는 만큼 양친 자격을 더욱 꼼꼼히 따져볼 필요도 있다.

기자수첩

이 꽃 들 정치경제부/flowerslee@



아동 학대 ‘사후약방문’

“중단된 위탁이 좌초된 입양보다는 낫다.” 독일에선 입양 전 ‘시합양육기간’을 국내와 달리 의무적으로 뒀다. 사전 위탁제도 법제화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취지에서 입양 전에 아동을 가정에 위탁해 양부모 될 사람과 입양 아동의 관계를 예상하

는 것으로 읽힌다. 국내에선 임시 인도, 즉 입양 전제 위탁에 대한 제도 준비를 통해 좌초된 입양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현실상 지원책이 요구된다. 임신, 맞벌이 가정에서 입양 시 지원 방안이 더 두터워야 한다. 단순히 사후 가정 방문으로 관리 차원

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동발달전문가와 상담 등으로 내실화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생후 100일 전 라포(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위해 사전 위탁 기간을 앞당기고자 하는 가정 비용이 높다. 사전 위탁을 활성화하려면 사전 위탁 기간에도 직장 유급, 육아 휴직이 가능하도록 법제를 보완해야 한다. 이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 손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발언이 실언으로 비치는 것은 친부모나 양부모나를 가리지 않고 아동학대 사건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으려면 아동 학대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입양 위기 징후 감지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正道言論	대표전화												(02)799-2600			
	經濟報國	팩스												(02)784-1003			
	未來指向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자본시장부 (02)799-2648	금융부 (02)799-2665	부동산부 (02)799-2637	산업부 (02)799-2644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디지털미디어부 (02)799-2643	사전영상팀 (02)799-6745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슈&인물

4차 산업혁명 시대 산학협력

박 전 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

“학과전공 개편 AI·IoT·3D프린팅 인재양성”

“올해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에 설립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이하 산기대) 제2캠퍼스 내 ‘첨단제조혁신관’을 신축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산학협력 대표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

박건수 산기대 총장은 2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산기대의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산기대는 1997년 개교 이래 산단 내 기업들과 친밀히 협력하며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며 “산기대 제1캠퍼스에 위치한 기술혁신파크(TIP)는 대표적인 산학협력 사례”라고 설명했다.

제2캠퍼스에 첨단제조혁신관 신축

박 총장은 “공학교육과 연구개발, 기술사 기능을 혼합한 TIP는 교수·학생·기업 연구원이 공동생활을 기반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산업계 수요에 맞는 글로벌 공학교육을 제공한다”며 “이는 산기대가 자랑하는 가족회사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대학과 기업 간 기술교류 및 공동 연구개발, 학생의 현장연수 등을 위한 산기대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시스템이다. 산기대는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4090개 가족회사를 포함해 교내에 입주한 125개 기업연구소와 상시 협력해 산학융합을 실현시키고 있다.

제2캠퍼스에 조성되는 첨단제조혁신관은 가족제도를 통한 산학협력을 보다 강화해 신산업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박 총장은 “첨단제조혁신관은 기업 지원 인프라의 집합체로서 공용장비지원센터, 고부가인쇄회로기판(PCB)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기업지원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대학만의 신(新)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해 인재양성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학생 50% 이상 장학금 혜택

박 총장은 이러한 산기대의 산학협력 강점은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실제 산기대 졸업생의 최근 5년 평균 취업률은 74.7%(2014~2018년)로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2018)인 64.2%보다 10%포인트(P)가량 높다. 취업의 질도 우수하다. 산기대 졸업생의 약 67%가 기술 분야(기술직·연구직)에 취업하고 있으며, 공학 계열이 아닌 디자인학부와 경영학부는 50% 이상이 사무직으로 취업하고 있다. 취업한 졸업생의 정규직 비율은 91.3%로 4년제 대학 졸업자 평균 정규직 비율 68.8%를 크게 웃돈다. 또 취업 졸업생의 약 40%는 300명 이상인 중견기업 이상에 취업하고 있으며 15%는 대기업과 공기업에 입사했다. 졸업생들의 근무지역을 보면 90.8%가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다. 졸업생의 전공 일치도를 보면 약 91%의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업종에 취업하고 있다. 입사 후 처우에서도 평균 이상의 높은 대우를 받고 있다.

박 총장은 “취업률이 우수하다 보니 학부모 및 고교 교사들 사이에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며 입학 성적도 4년제 기준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며 “특히 장학금을 수혜 학생의 비율은 2019학년도 기준으로 약 70.2%에 달한다. 이 중 17% 이상의 학생이 전액장학금 혜택을, 35% 이상의 학생이 등록금 50% 이상의 장학



박건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은 “우리나라 최대 국가산업단지인 시화공단 내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며 “제2캠퍼스 내 ‘첨단제조혁신관’을 신축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산학협력 대표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최대 국가산단 시화공단 내 위치

4090개 가족회사·125개 기업

상시 협력 통해 산학협력 실현

취업률 75%, 전국평균比 10%P ↑

학생 3명 중 1명 창업프로그램 참여

정부 재정사업 일반 창업자도 지원

2011~2019년 학생 창업기업

102곳서 졸업생 397명 근무 중

금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산기대의 장학제도는 신입생 장학금 8개와 재학생 장학금 22개를 운영하고 있다”며 “매년 성적향상장학, 꿈지원장학, 어학우수장학 등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장학 금액을 늘려 학업 동기부여를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융합전공 신설하고 추가 이수 유도

박 총장은 산기대 졸업생의 취업을 제고 위해 올해 학과 전공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 양성을 위한 방향으로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을 지냈던 박 총장은 2019년 2월 산기대 수장으로 취임한 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융합·실무형 인재 양성을 강조해왔다. 그 일환으로 박 총장은 신기술 분야의 융복합 교육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융합전공, 디지털엔지니어링전공 등 융합전공을 신설했으며 입학 시 선택한 전공 외에 다양한 융합전공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전공학점 체계 및 졸업 기준을 변경했다.

그는 “올해는 외부 기업에 파견하는 현장실습 외에도 교내에서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현장프로젝트 교과를 확대하고, 교수들의 연구에 학생이 참여하는 ‘엔지니어링 리서치(Engineering Research)’ 교과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체 및 학생 수요를 고려해 올해부터 디자인 학부를 미디어 및 체험형 디자인을 아우르는 디자인공학부로 새롭게 개편했다”며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탄소중립 등이 점진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 맞춰 에너지특성화 대학원도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러한 혁신 인프라와 혁신 성장 과제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대학 위상 강화와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요구에 선

속히 대응해 대학 경쟁력을 확보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격교육 중점

박 총장은 산기대가 성공창업에 향한 꿈과 열정을 가진 재학생, 일반인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굴에서 교육, 사업화, 사후관리까지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산기대는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예비창업자 발굴(예비창업패키지사업)과 학생 창업기업 지원(초기창업패키지사업) 및 대학원생 창업지원(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 총장은 “매년 재학생 3명 중 1명꼴로 대학이 제공하는 정규 교과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등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며 “그 결과 2011~2019년 102개 학생 창업기업에 397명의 졸업생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원격교육 시스템 수립·운영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혼합하는 수업을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의 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학사를 운영해오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교내 구성원의 요구 분석을 통해 온라인 수업 플랫폼인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수업 제작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러닝 스튜디오, 양방향 녹화강의실 등의 시설도 확충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기대는 2021학년도 1학기 운영을 목표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실습실 구축 및 콘텐츠 제작을 진행 중에 있다”며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가상 실습 콘텐츠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출신 산업정책 전문가

한편 산기대는 1997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출연해 1만9000여 부품 소재 기업이 밀집한 우리나라 최대 국가산업단지인 시화공단 내 설립한 4년제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이다. 제8대 산기대 총장인 박 총장은 산업 정책 전문가이자 고위 관료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콜롬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산업부 통상정책국 심의관, 통상정책국장, 산업기술정책관, 산업혁신성장실장을 역임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사설

미국 바이든 시대, 외교안보 전략 리셋해야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이 한 국시간으로 21일 공식 취임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분열된 미국 사회 통합을 강조했다. “미국을 하나로 묶고, 국민을 통합해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다”며, “바이러스 극복, 중산층 재건, 인종정의로 미국을 다시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종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슬람 국가의 미국 입국금지 철회와 함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비상사태 효력도 중단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의 정책들을 뒤집는 것으로, 본격적인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외교안보·경제·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고된다. 우리 안보와 경제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바이든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여 왔다. 트럼프 때의 정책 불확실성은 많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통상에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보호무역이 완화되고, 미국이 일방 탈퇴한 무역협정 복귀로 다자무역질서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란 낙관은 선부르다. 미국은 어떤 정권에서도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압박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취

임사에서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와 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들은 한결같이 대중(對中) 강경 메시지를 내놓았다.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되찾고, 동맹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핵에 대한 접근의 근본적인 전환이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톱다운(top-down) 해결을 모색한 방식이 북의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시간만 벌어주었다는 인식이다.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외교와 안보정책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재구축이다. 문 대통령은 줄곧 김정은과의 대화와 남북 협력에 매달렸지만 아무 성과 없이 핵위협만 가중하고 한미동맹의 파열음을 키웠던 것이 현실이다.

우리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 한미동맹임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의 사활적 사안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 지속과 대북정책 전환이 갖는 의미와 과제를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해온 전략적 모호성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음도 직시해야 한다. 외교안보 전략의 리셋(reset)이 절실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서둘러 동맹의 가치를 확고히 다지고 북한문제 접근의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가 우리말 한 토막

쫓을래? 쫓을래?

일상에서 우리는 머릿속 생각을 말로 옮길 때 보통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주장을 내세울 때도 그렇다. 그런데 말이 아닌 글로 표현하려고 하면 어떤 표기가 맞는지 헷갈려 멈칫하는 경우가 있다. 발음이 비슷한 데다 쓰임까지 유사하면 더욱 그렇다. ‘쫓다’, ‘쫓다’도 이에 해당하는 단어들이다. 쫓다[쫓따]와 쫓다[쫓따]는 발음이 비슷할 뿐 아니라 이들의 사전적 의미도 유사해 헷갈리는 이들이 많다.

쫓다는 ‘명예를 쫓는 사람’과 같이 ‘목표, 이상, 행복 등을 추구하다’는 뜻이 있다. “어머니의 유언을 쫓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윈의 진화론을 쫓았다”처럼 ‘남의 말이나 뜻, 또는 이론을 따르다’는 의미도 있다. 이외에도 ‘생각을 하나하나 더듬어 가다’는 뜻도 있다. “생각을 쫓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와 같이 쓸 수 있다. “갈매기 떼를 쫓고 있는 그의 시선은 한동안 계속되었다”처럼 ‘눈여겨 보거나 눈길을 보내다’의 뜻도 있다. 이처럼 쫓다는 명예, 이론, 생각 등과 같이 일

반적으로 목적어가 추상적 개념인 단어와 호응한다.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무언가를 따르거나 추구하고자 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에 비해 쫓다는 ‘어떤 대상을 잡거나 만나기 위해 뒤를 급히 따르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이때 쫓다의 목적어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다. “형사가 도둑을 쫓아가서 잡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이 밖에도 쫓다는 ‘(사람이 무엇을) 있는 자리에서 떠나도록 몰아내다’, ‘밀려드는 줄임이나 잡념 등을 물리치다’는 뜻도 있다. “야영장에서 모기떼를 쫓느라 정신이 없었다” “졸음 쫓는 방법을 찾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쫓다와 쫓다의 쓰임이 헷갈린다면 목적어를 생각하면 구분이 쉽다. 보통 쫓다는 행복이나 이론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목적으로 한다. 몸을 움직이는 것과 관련성이 적은 것이 ‘쫓다’이다. 반면 쫓다의 목적어는 사람, 짐승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이다. 그 대상을 잡기 위해 직접 뒤따라가는 동작성이 나타나면 ‘쫓다’이다.

신미라 편집부 교열팀 차장 kleinkind@



선한 영향력

= 마스크로 시간을 앞당기는 능력

마스크를 챙기는 오늘이
그리운 일상을 하루 빨리 되돌리는
‘타임머신’이 될 수 있게

서로를 배려하는
‘선한 영향력’이 더 큰 영향력이 되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